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스

“남은 임기는 도약·성장 시간 될 것”

李 대통령 취임 100일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부동산→산업 자금 전환
투기수요 억제·안정 강조

이재경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

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
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
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
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 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원관희 기자 wkh@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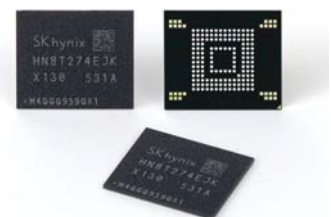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자율주행으로 심야시간 서울 강남을 누비고 있는 로보택시, 그리고 중소 제약사들이 협력해 만든 혁신적인 물류 풀필먼트 시스템의 도전기를 듣는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SK하이닉스, AI 스마트폰 공략 고성능 모바일 낸드 세계 첫 공급

모바일 낸드 'ZUFS 4.1' 양산 AI폰 성장세 따라 수익 청신호



SK하이닉스가 공급 개시한 ZUFS 4.1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용인 고성능 모바일 낸드를 업계 첫 양산·공급에 성공했다. D램 시장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에서도 약진해 주목된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 낸드 'ZUFS 4.1'을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 인증 절차를 마쳤고, 7월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스마트폰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려는 적에서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가켜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4년 AI 지원 스마트폰 제품 출하량은 2억3420만대에 달하며 이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에는 AI 스마트폰이 전치 시장의 60~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로 추측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반기문, 美 한국인 구금에 “동맹국에 합당한 처사 아냐… 안타깝고 화나”

▲국힘 “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특검법
필리버스터 안 한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 2차 추경 80% 집행 완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지자체 교부

▲여가부 장관 첫 방문지는 ‘디성센터’ “젠더폭력 대응 강화할 것”

▲정청래, 중국대사 접견 …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시켜야”

▲국정원 “김정은, 방중 ‘정상국가 지도자 연출’ 자평

신약개발·기업공개 등 활로모색… ‘CNS 치료제’ 각축전

〈중추신경계〉

제약·바이오업계, 성장 박차

명인제약, 이달 코스피 상장
1510억 중 1085억 시설확충 투입
부광약품, 국내 20위권 도약 박차
자회사 신약개발자금 투자 계획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심사중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중추신경계(CNS) 치료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고, 혁신신약 개발 역량, 특정 질환에 특화된 기술력 등을 확보해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명인제약은 정신신경계 약물 시장에서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 아이큐비아가 집계한 ‘국내 정신신경용제 시장 점유율 현황’에서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인제약은 뇌졸중,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 불안 등에 쓰이는 총 225종의 CNS 전문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해 왔다.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생산 인프라까지 갖췄다.

명인제약의 팔탄 제1공장과 발안 제2공장은 각각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자체 원료의약품 충당 비율을 늘려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외부 의존도를 줄여 원가 및 공급망 측면에서 변동 위험성을 낮추고 수익성은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총 1510억원으로 이 중 1085억원이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된다.

오는 2027년까지 발안 제2공장에 정제 및 캡슐 전용 고품제도를 증축한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펠렛’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의약품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술은 약물을 직경 0.5~2mm 수준의 과립구로 처방하

는 것으로, 향후 펠렛 제형 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신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팔탄 제1공장에는 주사제 제조를 위한 최신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약물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조현병 등 CNS 질환 분야에서도 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를 해소하는 등 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명인제약은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한다. 올해 1월 이탈리아 바이오 제약사 뉴론과 조현병치료제 ‘아베나마이드’ 한국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계약을 맺었다. 현재 아베나마이드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027년 말 발매될 수 있다.

최근 유상증자로 운영 자금을 확보한 부광약품도 CNS 질환군을 전략 과제로 삼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 3월 1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지난 7월 말 약 89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부광약품은 국내 20위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회사 콘테라파마의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지분 투자 계획을 지속 밝혀 왔다. 실제로 부광약품은 콘테라파마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JM-010, 파킨슨병 환자의 아침무동증 치료제 CP-012 등의 파이프

라인을 확보했다. ‘CP-012’의 경우 임상 1b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 톱라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부광약품이 지난해 8월부터 발매하기 시작한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신약 라투다정 등은 부광약품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투다정은 올해 5월 월판매 1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국내 빅5 종합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전국 종합병원으로 원내처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후 발매 3년 차에는 국내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인 큐라클은 연달아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CU71’에 대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특허는 용도 특허에 관한 것으로, 지난 7월에는 물질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큐라클의 ‘CU71’은 뇌혈관내피 기능장애 차단제로, 혈액뇌장벽(BBB)을 안정화해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억제해 준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

바메이트’는 제40호 국산 신약 후보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제품 발매까지 독자 성공한 제품이다. 뇌에서 흥분성 신호를 전달하는 나트륨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반복적인 신경세포 발화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품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SK바이오팜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한국·중국·일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서 약물 유효성이 입증돼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해당 임상에서 세노바메이트가 발작 빈도 감소율과 안전발작소실률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산 신약 개발 성공이 경제적이거나 기업 가치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혁신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은 다각도에서 시장에 접근하며 고난도 통합 역량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NS 치료제 시장은 복잡한 뇌 질환을 다루며 다양한 증상에 따른 병용 처방 등 환자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빅테크, 이용자·소상공인 동반자 인식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이버 등 빅테크 CEO 간담회
소상공인 상생 등 4개 과제 제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금감원 설립 이후 빅테크 CEO들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로, 빅테크 산업의 성장 방향과 사회적 책임,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IT 보안 강화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장도 함께 참석해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목소리를 보탰다.

11일 이 원장은 네이버·카카오·토스(비바리퍼블리카)·쿠방·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CEO들에게 “빅테크는 플랫폼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으며, 전통 금융업 진출을 통해 금융의 경쟁 촉진에



조했다.

그는 빅테크에 당면한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경영 정착 ▲소상공인과의 상생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IT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그는 ‘엔슈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처음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수익성 추구로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직접 언급하며 “알고리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안전한 결제 환경 구축에 힘써 달

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이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당국도 결제 수수료 합리화 등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판매대금 신속 정산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요구했다.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였다. 이 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려지고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천만 명의 정보가 집중된 만큼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해 IT 보안 투자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1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CEZ 본사에서 열린 테블린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CEZ 다니엘 베네쉬(Daniel Benes) CEO(왼쪽)와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 3000억 체코원전 수주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준공 후 15년 장기유지보수 포함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를 앞세워 체코전력공사(CEZ)와 테블린(Temelin)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계약을 따내며 유럽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11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따르면 체코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가 이날 체코전력공사(CEZ)와 테블린 원전 1·2호기 발전기 교체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발전기와 보조기기(BOP) 공급·교체 공사뿐 아니라 준공 후 15년간 장기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두산스코다파워가 주계약자로 사업을 총괄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전기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계약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테블린 원전 1·2호기(각 1125MW급)는 체코 남보헤미아주에 위치한 상업용 원전으로 CEZ가 운영하고 있다. CEZ는 최소 60년 이상 장기 운영을 목표로

원전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도 그 일환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은 “이번 수주는 지난해 두산스코다파워에 발전기 생산 기술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성과로서 체코 에너지 산업에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제 경쟁입찰에서 확인된 ‘팀두산(Team Doosan)’의 원전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발전설비 전문 기업으로, 체코·슬로바키아·핀란드 등 3개국에 원전용 증기터빈 26기를 공급한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발전시장에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납품하며 글로벌 발전 사업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두산스코다파워의 발전기 자체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와 기술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두산스코다파워가 발전 기자재 기업 중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정부, 비자문제·이민정책 적극 역할 해야”

》1면 ‘韓美 조선 협력…’서 계속

‘기술 집약형 산업’인 조선업 특성상 숙련 인력 파견 없이는 현지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선박 설계 변경, 신기술 적용, 품질 검사 등은 현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국 본사 기술자와 관리자의 투입이 사실상 전제된다.

한화오션은 현재 필라델피아 조선소

에 5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했다. 이들 모두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를 정식 발급받아 근무 중이지만 추가 인력이 필요해질 경우 비자 제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미국으로의 필요 비자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기업들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인력 양성과 한국 숙련공 투입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대규모 투자와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어 정부가 비자 문제와 이민 정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최근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 쿼터인 E-4 신설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단순히 전문 인력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 근로자 파견까지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지 인력은 제조업 숙련도가 낮고 임금이 높은 만큼 보완 없이는 프로젝트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근로자 구금, 기업들 투자고민할 것… 특별재판부 위험 아냐”

150분에 걸쳐 22개 질문 소화
대미 투자, 합리적 귀결 자신감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비판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

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당황스러웠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어떤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

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저는 합의 하길 바라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험(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왜 위험인가”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리인하 시기, 집값·가계부채 증가폭이 좌우”

수도권 주택시장 거래 둔화 확인
잠재 수요 여전… 가격 상승세 높아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소비자의 주택가격 기대에 따른 집값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2025년 8월 통화정책방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

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구체적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제한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수도권 내 주택구입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겹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7월 서울 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 36.8%로 14.5%포인트(p) 줄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33.9%에서 23.2%로 10.7%p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7월 이후에도 상승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집값 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여전히 리스크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은 재차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SK하이닉스, AI…’서 계속

세계 낸드시장 본격 진출 “고객 요구제품 적시 공급”

김주선 사장 “차별화 경쟁력 구축”

구글은 지난달 스마트폰 ‘픽셀 10’ 시리즈를 출시하며 512GB와 1TB 모델에 ‘ZUF’ 낸드를 적용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스마트



폰 내 AI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ZUF 낸드를 탑재했다.

ZUF(Zoned UFS)는 고속 플래시 메모리 규격이다. 데이터를 용도와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Zone)’에 저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체제(OS), 앱 캐시, 사진·영상 등 데이터 특성에 맞춰 저장 위치를 다르게 한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AI’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기존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UFS)’를 확장한 규격이다.

ZUF 4.1은 UFS 4.1 대비 장기 사용시 발생하는 읽기 성능 저하 현상을 4배 이상 완화한다. 앱 실행 시간은 UFS 대비 45% 단축하고, AI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간도 47% 개선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오류 처리 능력을 지난해 5월 개발한 4.0 버전 대비 대폭 강화했다. 오류를 더욱 정밀하게 감지한 뒤 중앙 제어 장치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과 복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CMO·사진)은 “ZUF 4.1은 안드로이드 OS와 저장장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협업해 개발·양산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요구하는 낸드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AI 메모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건설업 단기부양책, 장기회복 도움 안돼” “美 관세에 韓 성장률 0.45%p·0.6%p ↓”

투자 회복 위한 구조조정 제언

건설 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오히려 자본을 부동산 중심으로 쏠리게 해 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건설 투자 회복이 어려운 만큼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3~2017년 중완화적 금융여건과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부분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7년 자금의 부동산 쏠림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건설투자가 장기간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이날 한은은 지역간 수급불균형이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수요에도 토지가 부족해 주택공급을 제약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이 누적돼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다.

박 부총재보는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 및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철강·자동차 등 파장 확산 전망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었을 경우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0.45%포인트(p), 0.60%p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성장률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며 올해 성장률을 0.23%p, 내년 성장률을 0.34%p 내렸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품목별로는 대미 수출비중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 금속, 자동차, 기계 등의 업종이 관세 정

책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나라의 무역경로 외에도 금융경로의 불확실성도 커지게 했다.

이날 박 부총재보는 미국의 관세정책의 여파가 앞으로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관세가 점차 전가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수입이 2분기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철강, 자동차 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도 미국 내 자동차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영향이 점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실적 키우고, 신뢰 쌓고, ESG 앞세워… 미래 경쟁력 강화

금융의 미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올해 비전은 ‘내부통제 기능을 확립하고,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르게 금융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사고가 반복된 부분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금융인으로서 보유한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로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르게 금융을 알리겠다는 의미다.

11일 애프터오피스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올해 말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5조5000원으로 예상됐다. 3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조3514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9% 증가하며 올해 당기순이익을 이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2분기 순이익이 1억5491억원 증가해 상반기 순이익은 3조374억원에 달했다. 3분기까지 하면 누적 당기순이익이 4조3888억원이 예상된다.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한금융의 포트폴리오가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금융의 2분기 경영 실적을 보면 비이자부문 이익은 1분기 9393억원에서 2분기 1조22650억원으로 3257억원

(34.7%) 증가했다. 은행을 포함한 이자이익이 같은 기간 2조8549억원에서 2조8640억원으로 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됐다.

5조 순익 눈앞, 비은행 성장 견인
이자익 정체 속 비이자익 급증
신한투자증권 성과 두각 드러나
다변화 전략으로 성장 기반 확보
CFO “전 부문 실적 개선” 자신감

전상영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그룹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전 분기 대비 모든 영역에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 믿고 맡기는 신한… AI 인재 양성

비이자부문의 실적개선을 이끌었던 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역

량을 강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 유치에 통해 재무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브랜드를 ‘신한 알파 3.0’에서 ‘신한 SOL 증권’으로 새로 단장하며, 고객이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한카드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과 통제 및 감사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삼선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라이프는 2001년 신한생명과의 렌지라이프의 합병 이후 만들어진 곳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 부정적,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 누락, 전산시스템 통제 실패 등 7개 분야 법규 위반을 이유로 총 1억38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

과한 바 있다. 신한라이프는 내부통제 한 팀(One Team) 구동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 실천하고 있다.

◆ 지속 가능 경영은 ‘환경보호’부터

신한금융은 내부통제와 같은 무게로 환경개선에도 진심이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 선언을 했다.

현재 신한금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친환경 금융지원 확대와 임직원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량 총량은 2022년 2만3672tCO₂eq→ 2023년 7만2913tCO₂eq→ 2024년 7만718tCO₂eq로 줄었다.

일반폐기물과 재활용을 더한 폐기물 총 배출량도 2022년 460.4톤→ 2023년 404.2톤→ 2024년 276톤으로 줄었다. 2022년과 비교해 200톤가량 줄어든 셈이다.

상생 포용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은 2022년 3억원 2023 3억2000억원 2024년 3억4000억원으로 늘었다. 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약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내부통제 강화로 경영 안정 도모
신뢰 회복 위한 삼선 방어 강화
2050 탄소중립, 감축 성과 가시
15조 지원 등 상생 금융 확대
“ESG는 선언 아닌 실행” 강조

금융지원은 우선 업체당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총지원 액수는 15조1250억원 가량이다.

진 회장은 “ESG는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성을 만든다”며 “앞으로도 ‘멋진 세상을 위한 올바른 실천’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진옥동(가운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신한금융 직원들이 ‘온기나눔’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증권 디지털 화를 통한 모바일 고객경험 개선.
/신한증권 지속경영보고서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더 센 특검법’ 野 불참 속 본회의 통과

與 “권성동, 도주 우려에 구속 필요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 기부 받아”

與野 원내대표, 3대특검 수정 합의에
정청래, 재합의 지시… 당내 갈등 보여
李 대통령, 與野 합의 ‘부정적’ 입장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기표한 후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시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민주당이 3대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특검법 기간 및 규

모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합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여야 합의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여야 합의는 결렬됐고,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중 끝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와 의원총회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대 특검 연장법안은 기간과 수사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확대안으로 하고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 ▲특검 국수본 사건 이첩 시 특검 지휘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시키자”

국회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내달 APEC 시진핑 주석 참석 요청
명동 반중집회 언급도… 韓中관계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천년 교류와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지방·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다음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2024

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고 부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점에 ‘인류문명공동체’를 주창한 시진핑 주석의 ‘다자주의 정신’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 각자의 수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반중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셨는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깡판이자, 업무방해’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아침 이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사로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시주석과 우호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측은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7대 핵심 민생부분,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민생회복 첫걸음, 가계 생활비 부담 ↓
KT 소액결제 해킹에 “전모 속히 확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흑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KB손해보험 고객언어가이드 이미지.



신한라이프 '신한 새로고침' 이미지.

/신한라이프

쉬운 말·빠른절차·실시간 소통 보험업계 '고객경험 혁신' 경쟁

고객 중심 서비스 품질경쟁 확산
약관 문구 정비, 쉬운언어로 안내
보상절차 자동화로 신속·투명성 ↑
고객불편 접수 후 개선까지 공유

보험사들이 고객 접점을 '읽기 쉬운 말·빠른 절차·양방향 소통'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복잡한 용어 표준화, 청구·보상 실시간 안내, 불편 접수·개선 공개를 묶어 민원 감소와 고객 충성도 제고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하반기 고객경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언어·절차·소통의 3축을 동시에 다듬는 접근이 확산하면 동일한 보장이라도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손해보험은 이달 고객이 어렵게 느끼는 보험 문구를 평이한 표현으로 바꾸는 '고객언어가이드'를 발간했다. 가이드는 목소리·말투, 글쓰기 원칙, 표기 규칙, 권장용어사전 등으로 구성했다. 약관·서식, 상담 스크립트, 홈페이지·앱 화면까지 전 채널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이 상품은 65세 초과 가입 불가' 대신 '만 20~65세 가입 가능'처럼 긍정·명확 서술로 바꾸고, '환급금 청구 기간 경과'는 '청구기간 3년, 경과로 지급 어려움'으로 안내한다. 어려운 용어도 '배서→변경',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로 정비했다.

KB손해보험은 "향후에도 고객 언어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객 접점에서의 언어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월 장기보험 보상 시스템을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보상 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단순한 프로세스 개선을 넘어 '친절 문화'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청구 첫 단계부터 고객이 담보별로 필요한 서류를 조회하면 그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아 언제든지 확인하도록 바꿨다. 진행 현황은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은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산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통지해 담보·영수증별 지급내역과 부지급 사유까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객 중심의 보상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는 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을 열었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 편의성 혁신 활동의 일환이다.

고객이보험가입·상담·서비스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접수하면 개선 후 홈페이지와 신한SOL라이프 앱에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두넛콜(Do-Not-Call)' 서비스 안내 ▲실손24간편 청구 안내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서비스 '보이스아이' 확대 ▲보이는 ARS 상담 연결 강화 등에서 개선 과제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신한 새로고침" 활성화를 위해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수집하고 상품개발, 디지털 서비스 관리, 상담 프로세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LH 앞세운 공공주도 공급... 집행 가능성은 의문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재무 부담·속도 지연 변수로 지적
민간 정비사업 유인책은 빠져 논란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공공 주도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미 3기 신도시 공급을 공공이 주도했던 가운데 그간 택지 개발을 주로 맡았던 한국주택공사(LH)가 공급 주체로 전면이 나선다.

11일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를 '착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속도 제고와 유휴부지 활용 등이 공급대책 단골 소재임을 감안하면 기존 대비 가장 큰 변화는 LH의 직접 시행이다.

착공 계획 물량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총 6만호다. 사업 방식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 및 설계/시공 등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다. 이미 LH는 올해 역대 최대인 8조원(2만7000만 가구)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땅장사' 논란을 피하고, 직접 개발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도지만 문제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 있다.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LH 주도의 안정적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LH의 재무 구조는 정책 실행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라며 "LH의 이자부채 규모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가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 공공기관에서의 집행 속도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도별 공공주택 공급 추이를 보면 민간이 공급한 공공주택이 훨씬 많았다"며 "2018년에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물량을 늘리며 18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이 이어졌으나 당시 민간에서도 33만호의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이 동반된 것을 보면 결국 공공주택도 경기 사이클과 민간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LH의 직접시행 전환에 따라 청약이

나 분양가 등 관련 제도 개편도 불확실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가동 중인 LH 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LH 직접 시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논의될 제도개선 사항은 기존에 진행 중이거나 입주자 모집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업장과는 무관함"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과거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대대적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달리 실행률은 낮은 상황이 반복됐고, 특히 이번에는 공공 주도만 강조했을 뿐 민간 정비사업 등에서 유인책은 빠져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착공물량은 5년간 12만1000호로 제시했지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단순 시행 주체 변경을 제외할 경우 6만8000호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134만9000호 공급 계획 역시 착공 기준 물량으로 실제 입주시점과는 괴리가 존재해 공급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멈출줄 모르는 서울 집값, 32주 연속 상승

매매가격 전주대비 0.09% ↑
매매수급지수도 소폭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매수급지수도 소폭 올랐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3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20%→0.27%)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용산구(0.13%→0.14%)는 문배·이촌동, 마포구(0.12%→0.17%)는 공덕·상암동, 광진구(0.14%→0.20%)는 자양·광장동 주요 단지, 중구(0.11%→0.16%)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의 경우 강남구(0.09%→0.15%)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양천구(0.09%→0.10%)는 목·신정동 대단지, 서초구(0.13%→0.14%)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영등포구(0.10%→0.11%)는 영등포·여의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 '공덕2삼성래미안' 전용 114㎡는 8월 17억9000만원에 거래돼 2개월 전과 비교해 9000만원 올랐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전용 102㎡는 지난달 37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2월과 비교해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서울아파트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해 전주(99.8)보다 소폭 올랐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했다"며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매매가는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담 창구 외부 모습

/뉴스1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최대폭 증가

올 8월에만 전월대비 1.2조 늘어
주요 5곳 중 새마을금고만 1조 ↑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상호금융권에서만 전월 대비 1조 2000억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이 약 300억원 증가, 여신전문사가 200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제2금융권 중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다.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첫 증가다. 연도별 1~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감은 2022년 6조 3000억원, 2023년 19조원, 2024년 14조 4000억원 꾸준히 줄어든다 2025년 4조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봐도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상호금융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감액은 1월(-1000억원), 2월(8000억원), 3월(4000억원), 4월(2000억원) 5월(8000억원), 6월(1조 1000억원), 7월(4000억원)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이번 8월 들어 1조 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상승세를 견인한 곳은 새마을금고다. 실제 주요 5개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

을금고) 중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액은 전월과 비교하면 무려 1조원 증가했다. 신협이 1000억원, 농협이 2000억원 증가폭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가계대출이라고 하지만 늘어난 수치의 상당 부분이 실수요자 잔금 대출"이라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로 진행된 게 아닌 기존에 이미 분양을 받아놨던 분들이 입주하기 위해 진행한 잔금 대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대부분이 6.27 대책 이전에 신청했던 대출이 집계된 것"이라면서 "현재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10월에 가면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함께 오르면서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6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2.17%로 전년 말 대비 0.4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연체율은 2.27%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0.36%p 증가한 수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대출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금융사가 부과하는 비용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지면 가계대출 조기 상환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중국이 장악한 음극재 시장… 韓, 기술·투자로 반격 나선다

전세계 음극재 수요 1~7월 38% ↑
중국, 산산·BTR 앞세워 압도 점유

韓, 점유율 2.7% 글로벌 도약 과제
대주전자재료 CAPA 1.5만톤 확대
KERI 그래핀 적용 실리콘 보완
포스코퓨처엠, 흑연 공급망 강화

전세계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 세계 시장 점유율이 2.7%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셀 메이커와의 협업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있어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SNE리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계 전기차용 음극재 적재량은 69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산산(16만3000톤)과 BTR(12만4000톤)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은 26만3000톤으로 26.1% 성장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2.7%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국내 선도 기업들은 글로벌 협업과 투자 확대·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는 지난해 실리콘 음극재 연간 CAPA(생산능력) 약 3000톤을 확



일본 배터리에 공급하는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 전경. /포스코퓨처엠

보했으며, 올해까지 1만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00억원 이상을 시설 증설과 기술 개발에 투입했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셀 업체와 협업을 확대하며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주전자는 실리콘 산화물 기반 차세대 음극재 개발에 집중한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대비 충전 용량이 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4~5배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소재로 꼽힌다. 최근 파나소닉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며 상용화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충·방

전 과정에서 부피 팽창과 낮은 전기 전도도라는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2차원 탄소나노소재인 ‘그래핀’을 적용, 실리콘 팽창에 따른 성능 저하를 완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양산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전기·전자 소재·부품 전문기업 JNC머트리얼즈에 기술 이전이 이뤄졌으며 양산화를 위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통 음극재 소재인 흑연 공급망 강화에 주력한다. 천연흑연 음극재 연간 7만4000톤, 인조흑연 8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실리콘-흑연 혼합(블렌딩)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미국·유럽 완성차 및 배터리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며 국내외 공장 증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과 포항 공장에서 생산된 음극재는 이미 일본 주요 배터리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새만금산업단지 내 구형흑연 생산설비 착공도 준비 중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불산(HF)을 쓰지 않는 친환경 가공 기술과 고순도 구형흑연 생산 공정을 앞세워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한국 기업들의 현재 점유율은 작지만 공격적인 CAPA 확대와 기술 개발, 글로벌 협업을 통한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터리 음극재 시장은 전통 흑연 수요와 차세대 실리콘 수요가 공존하는 이원화 구조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기술 전환이라는 복합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시장 경쟁력은 원재료 확보 역량,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속도, 북미·유럽향 전략적 대응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도 “음극재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4대 소재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자립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을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이승용 기자 lsy2665@

포스코, HMM 인수 추진에… 해운협회 ‘강력 반발’

협회 “해운 생태계 붕괴 우려”
대기업 진출 실패사례 줄줄이 거론
법령·물류정책 등 정면 충돌 지적

한국해운협회가 포스코그룹의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의 인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포스코그룹은 HMM 인수를 통해 해운업 진출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협회는 11일 성명에서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하려는 것은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포스코그룹은 해운업 진출 이후 철광석 등 대량 화물 운송을 시작으로 철강 제품 수송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국내의 기존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HMM 컨테이너선 블레스호. /HMM

등 해운 산업 근간이 무너지는 동시에 수출입 업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내외 사례를 들어 대기업이 해운업에 진출하더라도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그룹은 포항제철 시절인

1990년 해운사인 거양해운을 설립했다가 1995년 구조조정을 위해 한진해운에 매각하며 해운업에서 손을 뗐다.

협회는 “1980년대 이후 거양해운, 호유해운, 동양상선 등 10여개 실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대기업이 해운을 자회사로 편입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해운 자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려 경쟁 운임보다는 협의로 운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공기업 자회사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수익성을 맞추려면 수송단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나아가 국내 법령으로도 대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운법 제24조는 제철 원

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업을 등록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업계, 학계, 해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물류정책기본법상 정부의 ‘제3자 물류(기업이 물류를 전문 업체에 위탁) 촉진’ 관련 조항을 들어 “포스코그룹의 해운업 진출은 국가의 제3자 물류 육성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포스코그룹과 해운업계는 지난 2022년 상생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회와 포스코폴로우는 국적선 수송확대 노력,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준수, 합리적인 입찰계약 등을 약속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선박 건조 현장에 스타링크 도입

KT·KT SAT과 업무협약 체결
선박 건조 전 과정 통신망 구축

HD현대가 선박 건조 현장에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도입한다. HD현대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T SAT 본사에서 KT·KT SAT과 함께 ‘스타링크 활용 및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선박 건조 과정 전반에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도입·적용한다. KTSAT은 스타링크 안테나 등 위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한다. 또한 KT는 자사의 AI 기술을 연계, HD현대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다. 미국의 대표 우주산업 기업인 ‘스페이스엑스’가 운영하고 있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광케이블 및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바다·산악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HD현대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활용해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통신망을 구축,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정희준 기자 naut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전자전 기술 확보

BAE와 천무 성능 개량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협업을 통해 다연장 로켓 천무의 현대 전자전 대응력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글로벌 방산업체와 협력해 전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대한민국과 영국의 안보협력 확대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와 ‘천무 유도탄과 고성능 항재밍 위성항법장치(GPS) 연동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재밍이란 강력한 전파로 무선통신 신호를 교란하는 ‘재밍(Jamming)’ 공격을 막는 기술이다. 현대전에는 재밍·항재밍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와 이번 계약을 통해 차세대 항재밍 기능이 포함된 BAE의 고성능 GPS를 천무 유도에 탑재한다. BAE의 군용 GPS 및 항재밍 기술은 이미 다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서 작전 성능이 검증됐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1 활용

AI 멘토링 클래스 운영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S11 시리즈’ 출시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AI 멘토링 클래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갤럭시 AI 기능을 활용한 학습법을 체험하고 진학·진로 전문 강사의 입시 컨설팅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삼성스토어 홍대와 삼성 강남에서 ‘AI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90분 간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20일은 대학 입시 변화와 고교학점제 특강, 27일은 입시 제도 변화에 맞는 학교 선택과 학습 전략 상담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멘토링 클래스는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삼성닷컴을 통해 20일과 27일 2개 회차 참가자를 모집하며, 10월부터는 매월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클래스 참석자에게는 1만8000원 상당의 ‘와이즈멘토 학과계열선정검사 이용권’이 한 팀당 1매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갤럭시 탭 S11 시리즈에 탑재된 멀티모달 AI로 학습 효율을 높이는 방법, 대화면에 최적화된 갤럭시 AI를 활용한 공부법과 진학·진로 설정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갤럭시 탭 S11 시리즈’를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정희준 기자 nauta@

덩치 키우고 디지털 경험 극대화… BMW ‘베스트셀러’ 진화

자동차 시승기

BMW ‘520i M sport’

최고출력 190마력… 제로백 8.1초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 탑재
‘즐거움·편안함’ 상반된 가치 실현

BMW의 대표 세단 5시리즈는 ‘베스트셀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모델이다. 그만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차종이자, BMW 브랜드를 상징하는 존재다.

지난해 11월 6년 만에 풀체인지로 등장한 8세대 5시리즈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첫선을 보이며 더욱 큰 화제를 모았다. 출시 6개월 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와 화제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모델답게 5시리즈 라인업 중에서도 520i는 상반키에만 7000대 이상 판매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히 브랜드 충성도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본 운전자들이 성능·디자인·안락함을 두루 인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시승에서는 ‘520i M sport’를 중심으로 7세대와 달라진 점을 살펴봤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차체 크기다. 신형 5시리즈는 전장이 95mm, 전폭이 30mm, 전고가 35mm 커졌으며, 축간거리도



BMW ‘520i M sport’ 외관

20mm 늘어났다. 제원상 수치만 보더라도 차체가 커지고 실내 공간이 한층 넉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열 공간에 앉아보면 레그룸과 헤드룸이 모두 여유롭고, 성인 3명이 탑승하더라도 답답하지 않은 쾌적함이 느껴졌다. 기본 530l의 트렁크 공간은 실용적이며,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과감하면서도 세련됐다. 전면부는 ‘BMW 아이코닉 글로우(Iconic Glow)’가 새로운 BMW 키드니 그릴과 조화를 이뤄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주·야간 모두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준다.

측면부는 뒤로 갈수록 치켜 올라가는 라인과 입체적인 휠 디자인이 역동성을 부각한다. 특히 C필러 부분에 음각으로 새겨진 숫자 ‘5’는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디테일로, 세심한 디자인 요소가 매력을 더한다. 후면부는 다소 묵직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릴 여지가 있지만 차체의 체격감을 강조해 안정감을 전달한다.

실내는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시원한 화면과 직관적인 조작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내비게이션, 주행 모드 전환, 공조장치, 시트 열선 등 주요 기능을 대부분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덕분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주행 감각은 부드러움과 스포티함이 공존한다. 2.0l 가솔린 4기통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8단



BMW ‘520i M sport’ 실내

/이승용 기자

스텟트로닉 스포츠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31.6kg·m를 발휘한다. 제로백은 8.1초, 최고 속도는 230km/h다. 수치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주행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민첩한 변속과 함께 순식간에 원하는 속도에 도달한다.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로 주행 퍼포먼스 역시 직관적으로 움직여 원하는대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때 엔진 회전수 증가에 따른 소음과 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안락함이 유지된다.

코너링과 차선 변경에서도 안정감은 두드러진다. 고속 주행 중 커브 구간을 진입했을 때 차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불안감이 없었고 급차선 변경 상황에서도 차는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는 BMW가 강조해온 50:50 전후 무게 배분과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 차체 경량화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다.

승차감도 한층 세련됐다. 과속방지턱이나 노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을 지날 때 충격이 부드럽게 흡수돼 탑승자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2열 역시 잔진동만 느껴질 뿐 승차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비 효율성은 기대 이상이였다. 공인 복합연비는 12.1km/l지만 실제 시승에서는 13.9km/l를 기록했다. 장거리 주행에서는 16.4km/l까지 나와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

520i의 국내 출시 가격은 트림에 따라 다르다. 뉴 520i A/T가 6880만원, M SPORT가 7330만원, 스페셜 에디션이 7490만원이다.

8세대 520i는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한 이동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모델로 요약된다. 7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욱 커진 차체와 넓어진 공간, 강화된 디지털 경험, 정숙하면서도 스포티한 주행 성능은 분명한 진화를 보여준다. 단순히 세대를 이어받은 것이 아닌 한층 진화한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BMW가 지난 50년에 걸쳐 쌓아온 5시리즈의 역사와 철학은 8세대에서 다시 한번 증명됐으며 국내 소비자들 이 차에 열광하는 이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완성차업계, 전시장 ‘문화공간화’ 가속

현대차, BYD 등 콘셉트 전시장 조성 체험형 공간 통해 소비자 접점 확대

완성차업계가 단순 자동차 판매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 전시장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 판매를 위한 전시장이 아닌 체험형 공간으로써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인천 서구 봉오대로에 ‘BYD Auto 인천서해구 전시장’을 열었다. 이번 전시장은 카페형 콘셉트를 내세워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매 상담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했다. 소비자는 휴식을 취하면서 차량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단순한 판매 중심 전시장과 차별화된다.

신규 전시장에는 지난 8일 출시된 도심형 전기 SUV ‘BYD SEALION 7’을 비롯해 아토 3, 쉼 등 올해 선보인 주요 모델이 전시됐다. 소비자는 카페 공간에 앉아 차량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브랜드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BYD코리아는 지난달 홍대에 국내 최초 카페형 전시장인 ‘BYD Auto 마포 전시장’을 선보였다. 2층, 350㎡ 규모의 이 전시장은 최대 3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1층은 카페와 전시 공간이 연결돼 있고, 2층은 상담 및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단순 판매 거점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지면서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브랜드 체험형 전시장 확산은 근래 자



BYD Auto 인천 서해구 전시장.

/BYD코리아

동차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국내 최초 카페형 전시장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선보였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부터 커피빈과 협업해 여의도, 성내, 구리 등 주요 지역 전시장에 ‘노천카페’ 콘셉트를 도입했다. 소비자가 카페에서 음료를 즐기면서 차량을 보고, 필요하면 바로 상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일본 도요타는 한국에서 ‘CONNECT TO’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장을 문화 공간으로 선보였다. 이 공간은 ‘연결’을 테마로 해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아는 서울 압구정에 ‘BEAT 360’을 열어 가장 진화된 형태의 카페형 전시장을 구현했다. BEAT 360은 카페와 살롱, VR 체험 공간까지 결합한 플래그십 전시장이다.

업계에서는 BYD코리아가 추가적인 거점 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BYD코리아는 현재 부산 동래구에 카페형 전시장 개소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전국 단위 브랜드 경험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마포에 이어 ‘수입차 거리’로 불리는 강남 도산대로에도 전시장 오픈을 추진한다. 현재 BYD코리아는 전국에 21개 전시장과 14개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회사는 올해 말까지 30개 전시장과 25개 서비스센터를 확보해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단순한 차량 판매 거점을 넘어 카페형 전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브랜드 가치를 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BYD코리아는 앞으로도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미래 모빌리티 가치를 전달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삼성전자, 美 소비자 만족도 조사 1위

TV·생활가전·청소기 부문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TV, 생활가전, 청소기 부문 1위를, TV 부문에선 2년 연속 가장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로 선정됐다.

미국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소비자 만족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V, 가전, 진공청소기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에서 TV 부문 83점(100점 만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하이센스·비지오(82점), LG전자·TCL(81점), 소니(80점)가 뒤를 이었다.

생활가전 부문에서 역시 종합 점수 82점으로 월풀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가 81점으로 3위에 올랐으며, 보쉬·일렉트로룩스·하이얼이 80점을 기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소기 부문에서도 삼성전자는 82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샤오미가 81점으로 2위, 다이슨과 비셀이 80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발표된 ACSI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스마트폰 전체 부문에서는 애플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5G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부문에서는 단독 1위에 올랐다.

/정희준 기자 nauta@

대한전선, 베트남 케이블공장 건설 ‘청신호’

동나이성 당국과 지원방안 등 논의

대한전선이 자회사 대한비나(TAIHAN CABLE VINA)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과 관련해 베트남 동나이성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한전선은 대한전선 및 대한비나 임원진이 보 탄 독(Vo Tan Duc) 동나이성장을 만나 공장 건설 계획과 경제 효과를 설명하고, 착공·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 및 기반 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나이성은 호치민 인근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풍부한 산업단지과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베트남 내 주요 제조업과 전력 인프라 투자의 중심지로 꼽힌다.

대한전선은 이번 공장 설립을 통해 대한비나는 베트남 내 초고압 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유럽·미주·아세안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387억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인력 10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정희준 기자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 5561명 IMSI 유출 확인… 피해자 금전부담 모두 면제”

KT 소액결제 사태 일파만파

김영섭 대표, 고개 숙여 사과
유심 교체·보호서비스 지원

전례없는 방식… 원인규명 시급
제도적 보완·책임 강화 등 불가피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충격을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278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찰, 보안업체가 합동 조사에 착수했지만 범행 수법과 목적 등이 기존 해킹 사례와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김영섭 KT 대표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고객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KT는 자체 조사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팜토셀)을 통한 국제이동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KT는 약 1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영섭 사장, 이현석 커스터머 부문장 부사장. /손진영기자 son@

만9000명의 고객이 팜토셀의 신호를 수신했고, 이로 인해 5561명 고객의 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T는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고객 5561명에게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무료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보안업체는 차량에 기지국을 신

고 돌아다니며 신호를 가로채는 ‘위드라이빙’ 수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단순 신호 탈취만으로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 탓에 IMSI 외 다른 개인정보 또한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주로 티머니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형태로 나타났

다. 하지만 티머니 충전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해 해커가 직접 이익을 얻기 어렵다. 상품권은 제3자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KT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은 KT

가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에 따라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태는 KT가 지난 7월 ‘정보보호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초기 대응에서 원인을 ‘스미싱’으로 오인해 조치가 늦어진 점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팜토셀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결제로 이어지려면 추가 인증 정보가 필요하다”며 “아직 전례 없는 방식이라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이동통신 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통신사 책임 강화, 보안 투자 실효성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몰입감 넘치는 현장체험·참여형 행사로 글로벌 팬 ‘공략’

도쿄게임쇼 2025

日 성우 초청 토크쇼, 포토존 등 마련
현장 플레이 체험존으로 신작 체험
체험형 전시, 라운지 공간도 운영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메세에서 개최되는 ‘도쿄게임쇼(TGS) 2025’를 단순 게임 신작 공개가 아닌 현장 체험·팬 이벤트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 각사는 신작 시연, 굿즈 증정, 코스프레 포토 세션, 성우 무대 등을 마련하며 일본 및 글로벌 팬 확보 경쟁에 나선다.

컴투스는 ‘도원암귀 크립슨 인페르노’ 부스 디자인을 레드와 블랙 중심의 다크 판타지 분위기로 꾸미며 몰입감을 높인다. 테스트 섹션에서는 방문객이 PC와 모바일 두 플랫폼에서 신작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

이벤트 무대에서는 주인공 이치노세



도쿄게임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시키 역 성우 우라 카즈키와 코우가사키 진 역 성우 니시아마 코타로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캐릭터 코스프레 포토 세션, 인플루언서 초대석, 포토존 등 팬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부스에서는 애니메이션 TV 원작의 깊이 있는 스토리와 생동감 있는 전투 연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카제나)’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미래시)’ 양 게임에 대해 현장 플레이 체험존을 마련한다.

카제나는 스토리와 전투 콘텐츠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방문자 전원에게 카드팩을 증정하고, 렌터블러 포스트카드·SD캐릭터 스티커·쇼퍼백 같은 한정 굿즈도 주어진다. 유명 코스프레 모델이 오리 모에와 시노노메 우미가 카제나 무대에서 포토세션 및 토크쇼를 진행한다.

미래시는 인기 모델 에나코가 등장해 토크쇼를 갖고 미공개 특별 게스트도 참여 예정이다. 미래시의 실제 플레이 모습 공개는 이번이 최하다.

엔씨소프트는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부스를 통해 PC 및 모바일 게임 시연, 레이드 콘텐츠 체험, 코스프레 포토 이벤트, 생방송 무대 행사 등을 운영한다.

특히 27일 오후에는 일본 유명 성우 3인이 무대에 올라 게임을 소개하고 멀티플레이 콘텐츠를 직접 시연한다. 관람객들은 11종의 캐릭터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으며, 게임 이야기 및 캐릭터 특성 등에 대한 생생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스터 길들이기: Star Dive’ 두 작품으로 총 52대의 시연대를 준비했다. Origin에 28대, 몬길 STAR DIVE에 24대가 배치되며, 각각의 시연 공간에서 스토리 모드 및 오픈월드 탐험, 보스 타임 어택 콘텐츠 등이 체험 가능하다.

부스는 Origin의 거인족 다이엔 조형물, 몬길의 마스코트 야옹이, 일곱 개의 대죄 대표 마스코트 호크 돼지 등 대형 테마 조형물과 장식으로 꾸며져 관람객 시선을 끈다. 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코스프레 쇼 및 인기 성우 토크쇼도 계획 중이다.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의 일본 시장 일반 공개를 이번 TGS 2025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 방문객은 초중반 퀘스트와 대규모 전투 장면 등이 포함된 오픈월드 데모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래픽·사운드·이펙트 등 연출 요소 강화된 체험형 전시가 꾸며진다. 관람객용 인터뷰 영상 및 제작진 발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 전시 부스를 통해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라운지 공간과 탈 것(호버 바이크) 체험 요소, 코스튬/코스프레 콘텐츠, 캐릭터 코스튬 플레이, 무대 이벤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27일에는 개발진이 직접 부스를 탐방하며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의 주요 콘텐츠 및 부스 구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SDS, 기업고객 위한 ‘AI 풀스택’ 전략

‘리얼 서밋 2025’서 공개

삼성SDS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객 초청 행사 ‘리얼 서밋 2025’에서 기업 고객을 위한 ‘AI(인공지능) 풀스택’ 전략을 발표했다.

AI 풀스택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프라부터 플랫폼, 솔루션, 컨설팅까지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기반으로 생성

형 AI 플랫폼 패브릭스, 협업형 AI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 업무 자동화 도구 브리티 오토메이션 등을 중심으로 풀스택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풀스택 서비스보다 우수한 점을 묻는 말에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기술 역량에 더해 산업별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라고 답했다. 삼성SDS 송해구 솔루션사업부장은 “SAP, 워크데이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제휴, 국내 유일의 프라이빗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공 경험

차별 요소”라고 설명했다.

‘풀스택 서비스가 기업의 기술 의존도를 높여 록인(종속)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장은 “풀스택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지만, 모든 고객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각 기술 레이아웃별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고객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삼성SDS는 ‘전체를 통합하되 고객별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삼성SDS는 플랫폼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익시오’ 보이스피싱 탐지 고도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익시오는 통화 중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알람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성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탐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AI

가 화자의 음성을 분석해 성문 정보와 유사도를 판별하고 일정 수준 이상 일치하면 알람을 보내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탐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 모두 텍스트 분석과 성문 비교를 결합한 복합 탐지 모델을 적용해 탐지율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위변조 음성을 가려내는 ‘안티딥보이스’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안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

23.91% ↑ 압도적 ‘허니문 랠리’… 추가상승 전망은 ‘이견’

李 정부 100일, 증시 새역사

코스피 29.67p 오른 3344.20 마감
정책 불확실성 해소 박스권 탈출
연초 순매도 外人, ‘매수’ 돌아서
키움, 코스피 상단 3550p 제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박스권에 갇혔던 국내 증시는 역대급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9.67포인트(0.90%) 상승한 3344.20에 마감했다. 장중 3344.70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7월 세계 개편안 발표 후 박스권에 머물던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역사를 새로 쓰는 모습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는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11일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재명 정부는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압도적인 ‘허니문 랠리’를 보여 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거래일인 6월 2일 2698.97이었던 코스피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 11일까지 23.91% 올랐다.

이제는 ‘국장(국내 주식시장) 갈아타는 게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온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 흐름을 타기 시작한 시

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한다.

올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부터 지난 4월까지 순매도를 지속했다. 하지만 5월(1조2000억원)부터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고, 6월 2조7000억원, 7월 6조300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8월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다시 1조8000억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9월 들어서는 9거래일 만에 3조3000억원 수준의 순매수를 보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3200에서 3300까지 올라가는 이번 랠리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역할이 컸다”며 “최근 주가 상승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 연준 금리 인하 방향,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된 우려 완화 등이 주요했다”고 짚었다.

다만 박 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수준이 과열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가격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만큼 기대 수익 관점에서는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동결을 확정하더라도 기존보다 완화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린다. 낙관적으로는 연말 최대 35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된다. 추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 모멘텀이 남아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존재한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과 키

움증권이 올해 상단을 3550포인트로, 유안타증권과 교보증권은 3500포인트, 삼성증권은 3400포인트를 제시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철회 등으로 시장 진화적, 효율주의적 스탠스가 재차 확인됐고, 9월 정기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정부 스탠스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나 구조적 목표를 고려하면 연말 지수는 3000포인트 이하보다는 사상 최고치 이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긍정적 시나리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30% 미만, 자사주 매입 소각 유예 1년 미만 등이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8월에 세계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기대감으로 원상복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수의 추가 랠리 여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역대 최대치인 3300포인트는 상회하겠으나 상호관세나 기업 실적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해당 레벨에 안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호재와 악재 동반… 韓 증시 ‘불안한 축포’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 후 선택하세요”

국내외 시장 전망·투자 전략

美 금리인하 기대감 투자자 증가
“단발성 아닌 인하 사이클의 시작
수혜주 탐색… 자금유입 등 호재”

美 관세·고용쇼크 등 ‘악재’ 우려
국내 AI·바이오·조선 수혜주 꼽아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안한 축포를 쓰고 있다. 헷살과 먹구름이 교차하면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반면, 미국의 ‘고용쇼크’는 투자자들에게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을 안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전쟁도 증시를 짓누른다.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또 어떻게 하면 글로벌 변수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 자산을 잘 굴릴 수 있을까? 국내 전문가들로 부터 국내외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발 증시 훈풍 불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훈풍을 몰고올 것으로 봤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를 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 올 연말 미 기준금리 상단이 연 3.75% 이하일 확률은 총 74.1%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남은 세번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이 3회(0.75%포인트)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달 FOMC에서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고용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50 포인트(0.80%) 오른 3341.03 포인트를 나타내며 상승 출발한 모습. /뉴시스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신호로 해석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9월 50bp(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면서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되고 고용 성장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주식시장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 탐색이 시작될 것이고, 한국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식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금융시장을 긴장시킨다.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이라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침체의 징조라면 금융시장에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바이오 업종 주목

개미(개인투자자)의 시선은 여전히 미장(미국시장)에 머물러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해외 주식 결제액은 504억2000만달러(약 70조2800억원)로, 7월보다 3억7000만달러 늘었다. 해당 기간 동안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가

호황을 보이는 반면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 구호와 달리 3100~3200대 박스권에 머무른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이날 장중 신고가(3344.70)를 새로 쓰면서 투자심리에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며 가치주와 AI·바이오 등 신성장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나 연구원은 “이달(9월) 정기 국회 시작에 따른 상법개정안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등 가치주가 여전히 선호되는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이 신성장 업종에 집중되고,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사주 매입 여력이 큰 곳도 관심대상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시장 상승은 밸류에이션 확대, 특히 상법·세법 개정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요 요인”이라며 “주주환원정책 확대 분위기 속에서, 자사주 매입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수급 개선으로 인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 개선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기능을 개선해 가입자가 사업자와 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율 세분화해 제공하고, 상품 특성에 따른 분류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11일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는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와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된다. 기존에는 예금과 국제·통안채 등 채권을 함께 묶어 수익률을 산출해 금리 변동 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성격이 다른 상품을 명확히 구분

해 투자자가 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은 제도(D·B·DC·IRP), 상품(원리금보장·비보장), 기간(1·3·5·7·10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역시 대면·비대면 가입 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공한다. 최근 비대면 IRP 가입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어, 이용자는 동일 조건에서 사업자별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상품 선택 단계에서는 투자 성향에 맞춘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가 제공된다. 주식형·채권형 등 유형,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이 한눈에 공개돼 동일 등급 내에서도 성과와 비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퇴직금은 장기 운용 특성이 강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7년, 10년 등 장기 수익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KODEX ETF 순자산 90조 돌파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 KODEX가 업계 최초로 순자산 9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와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서 채권형·파킹형 ETF, 미국 대표지수 추종 상품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된 결과다.

삼성자산운용은 11일 KODEX ETF 순자산이 9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80조원을 돌파한 이후 7월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 KODEX는 총 220개 상품을 운용하며 시장 점유율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 운용사 기준 세계 4위 규모의 ETF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대표지수 상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6월 말 이후 KODEX 미국S&P500은 7351억원, KODEX 미국나스닥100은 5458억원 늘어나며 두 상품의 순자산 합계가 8조원에 달했다. KODEX 미국S&P500은 상장 4년 4개월여 만에 순자산 5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채권형과 파킹형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같은 기간 1조6090억원 증가했고, KODEX CD금리액티브(3594억원), KODEX CD1년금리플러스(1754억원)도 확대됐다.

/허정윤 기자

정부 “불합리한 규제 신속개선” 에너지·소방 등 현장부담 완화

김민석 총리, 용인 클러스터 점검
622조 투자 세계 최대 단지 조성
소방·건설 기준 현실화, 안전은 강화
기업애로 해소해 반도체 경쟁력 ↑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해 현장과 괴리가 큰 에너지, 소방, 건설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관계자, 광노성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은 ▲소방관 진입장 설치기준 개선 ▲충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등이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에 따르면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반도체 공장은 한계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3배쯤 높다.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공유됐다. 앞으로는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지만 설비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설비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 크기가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

참석자들은 대안책을 모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서 인근 지역으로 생산된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동일 산업단지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세제 지원 확대

기재부, 6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2일까지 6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증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4억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9억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증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주택수 제

외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비수도권의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2개 등 총 7개 기술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이다. 미래형 운송 기술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등이 추가된다.

이 밖에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기술에는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보다는 낮지만 일반 R&D보다는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이 적용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39세이하 한부모가구 비중 8%대 육박

통계청, 청년부모 10명 중 8명은 여성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청년부모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9세 이하 청년가구 중 한부모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청년(20~39세) 한부모가구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 가구는 총 106만4839가구였다. 이 중 한부모가구는 8만1452가구로 7.6%를 차지했다.

한부모가구는 청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살고, 다른 한 명은 사망·이혼·미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한부모가구 비중은 2020년 6.7%에서 3년 사이 0.9%포인트(p) 높아졌다. 2020년 6.7%, 2021년 7.1%, 2022년 7.4%, 2023년 7.6% 등으로 연평균 0.3%p 증가했다.

특히 청년한부모가구의 가구주 중 여성의 비중이 78.2%에 달했다. 남성은

21.8%에 그쳤다. 반면 양부모가구의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73.9%였다.

청년 한부모가구 중 ‘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66.9%로 가장 많고, ‘부와 자녀’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16.9%에 불과했다.

이혼·사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그 양육과 생계 부담이 대부분 여성에게 지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대 초반(20~24세) 가구주 중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비율은 42.4%로 남성(7.2%)보다 6배 높았다. 20대 후반(25~29세)에서도 여성 28.8%, 남성 4.6%로 격차가 뚜렷했다.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서도 여성이 각각 15.8%p, 17.3%p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9%)보다 비수도권(8.4%)에서 한부모가구 비중이 높았다. 전북(11.1%), 제주(9.7%) 순으로 높았던 반면, 세종(4.4%), 서울(6.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국가채무 1240조 돌파… 추경에 빚 붙어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관리재정수지 적자 86조, 역대 3위
올해 111조 적자 전망… 건전성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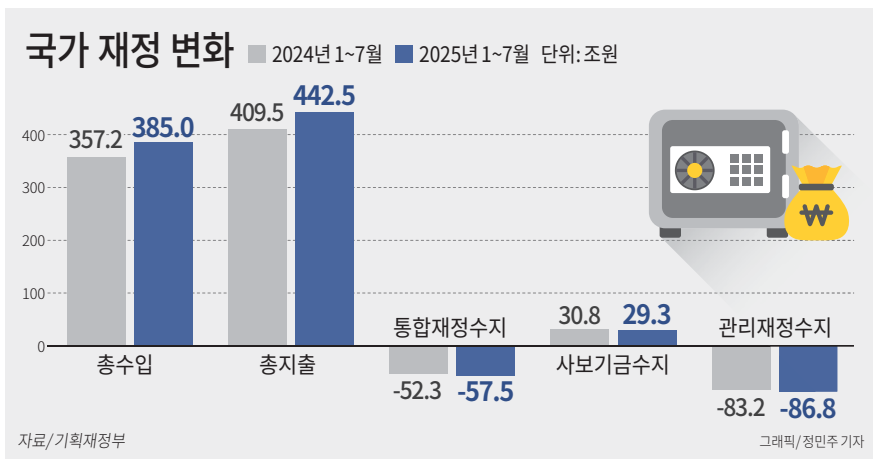
올해 7월까지 중앙정부 채무가 전달에 비해 18조원 넘게 늘어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데 따른 나랏빚 증가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7월 말 기준 12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8조9000억 원 늘었다.

7월 중순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재정동향에 반영됐다. 정부는 2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의 황희정 재정건전성고장은 “총지출에 추경이 반영됐고 현재까지 2차 추경 집행실적이 반영된 수치”라며 “2차 추경이 반영돼도 추경 전액이 이달 지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중 국채가 1239조1000억원으로 채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고채권이



1138조 원, 국민주택채권이 77조4000억원, 외평채권이 23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23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14조5000억원)가 늘고, 성과급 지급 등 소득세(9조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 원, 기금수입은 131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일반

회계 지출이 253조8000억원으로 26조3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27조2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7월 누계 기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5조1000억원 늘어나 -57조5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금 흑자(29조3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크다. 적자가 가장 컸던 때는 2020년으로 7월 누계 기준 98조1000억원이었고 두 번째는 2022년으로 86조8300억원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협력

환경부, 국제감축사업 현황 점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제1차 한국·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 확대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거나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환경부는 현재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해 소각한 뒤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또 환경부가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2회

 G밸리 Gvalley Art Show **아트쇼**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
하다

STEP1. 푸른 청춘의 외침展

2025. 9. 1월 - 9. 13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2. AI아트展 & AI영상 광고展

2025. 9. 15월 - 9. 27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3. 디지털에 마음을 담다展

2025. 10. 22수 - 11. 8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가산 **SK V1 center** 20F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아쿠아픽 본사 내)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청년작가 및 AI작가 전시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시 및 작품 문의 02-6743-3303

주최 **G밸리아트쇼 조직위원회**

 **KIBA**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Korea Industrial Business Association

주관 **SOHWASO**

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aquapick**  가산 **SK V1 center**
아쿠아픽

서울대·고려대 의대 수시 경쟁률 ↓

각각 지원자 240명, 508명 줄어
올해 의대 모집정원 축소 영향에
상위권 학생 상향보다 안정 지원
지난해 의대 대거합격에 재수생 ↓

서울대와 고려대 수시모집에서 의대를 비롯한 주요 학과의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지난해 의대 모집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여파와 올해 정원 축소가 맞물리며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전략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대학가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10일 서울대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은 8.12대 1로, 전년도 9.07대 1보다 하락했다. 수시 지원자 수 역시 전년 대비 1890명 감소한 1만 7986명으로, 9.5% 줄었다.

의대는 충격이 더 컸다. 서울대 의대 수시 경쟁률은 10.92대 1로, 지난해 13.56대 1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원자 수 역시 240명(18.6%) 줄어 1052명에 그쳤다. 이는 전국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12.66대 1) 1215명보

다도 낮은 수치로, 당시보다 지원자가 167명(13.7%) 적었다.

학과별로는 인문계 일반전형에서 사회학과(16.50대 1), 사회복지학과(15.57대 1), 철학과(15.56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자연계 일반전형에서는 응용생물화학부(19.27대 1),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18.31대 1), 생물교육과(14.86대 1) 등이 지원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려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703명 모집에 5만5009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20.35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30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의대 경쟁률은 크게 떨어졌다. 고려대 의과대학의 경쟁률은 22.97대 1로, 전년도 30.55대 1에서 하락했다. 지원자 수도 1539명으로 전년도 2047명보다 508명(24.8%) 줄었으며, 2024학년도(1812명)와 비교해도 273명(15.1%) 감소했다.

반면 논술전형에서는 일부 학과의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영학과 논술전형은 170.58대 1을 기록했는데, 수능 최저학

력기준이 전년 '4개 영역 등급 합 5'에서 올해 '합 8'로 완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철학과(87.75대 1), 자유전공학부(86.67대 1), 전기전자공학부(93.80대 1), 기계공학부(77.54대 1), 산업경영공학부(74.57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대와 고려대 사례에서 보듯 2026학년도 의대 지원자 수는 전반적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는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인해 상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보다 안정 지원을 택한 점, 지난해 정원 확대 시 최상위권 내신 학생들이 대거 의대에 합격해 급년 재수생 풀(pool)이 줄어든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의대 모집정원 대폭 축소로 인해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대학별로는 의대 모집 확대 전인 2024학년도보다 지원자 수가 더 줄어드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출판·전시업계 등 입주 가능
청년통장 등 서류제출도 간소화

서울시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장벽은 걷어내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던 절차는 대폭 간소화해 기업 성장과 민생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

서울시는 11일 ▲마곡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시설 개방 ▲청년통장 등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기업에 마곡의 문을 활짝 열어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클릭 한 번으로 서류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단 2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마곡산업단지는 IT(정보기술), B T(생명공학), NT(나노기술), GT(녹색기술), R&D(연구개발) 업종만 허용된다.

시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출판, 영상·오디오 제작·배급, 전시·컨벤션·행사대행, 기타 전문서비스업 업종의 기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9월 11일 고시를 거쳐 즉시 적용된다.

‘입주기업 소속 연구 인력’만 근무할 수 있었던 마곡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협업을 추진하는 자회사, 협력사, 외부 연구기관 연구원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파견근무가 가능해진다.

서울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이룸통장’의 서류 제출 과정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청과 만기 때마다 주민등록표, 4대 보험 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개인별 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서울시는 이런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핵심 서류 3종(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을 자동으로 전송받는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만 작성하면 해당 자료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전송된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확대

올해 43곳 추가… 내년엔 115곳으로

성남시는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스마트 그린·안전 버스정류장 쉼터를 현재 45곳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15곳으로 대폭 늘린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폭한기와 혹서기에도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냉난방, 공기청정, 무선충전, 와이파이, 실시간 버스 도착정보 제공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약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매년 설치를 확대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43곳을 추가해 총 88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상기후 심화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자,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청소업체 관계자가 성남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를 세척하며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

/성남시

시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해 확충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비 15억 원과 도비 12억 원을 투입해 27곳을 더 설치, 전체 규모를 115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혁신교육 성과 나누고 미래학교 방향 모색

내일 ‘서울혁신교육 포워드’ 열려
총 3부 15개 세션… 700여명 참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서울혁신교육 포워드(FORWARD) 2025’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혁신교육의 실천 성과를 돌아보고, 교육 대전환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 함께 훑아보는 혁신교육,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주제로 총 3부 15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교원, 교육전문직, 연구자, 학생, 학부모 등 약 700여 명이 참여해 현

장의 실천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1부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에서는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희망의 교육을 일궈가는 교사들을 응원하는 밴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서 ‘교사,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미래혁신교육’을 주제로 한 양성관 건국대학교 교수의 기초강연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협력교육’을 주제로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2부 ‘함께 훑아보는 혁신교육’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학생주도성 기반 교실과 학교 변화, 학생 돌봄, 디지털 전환과 수업 혁신, 학부모-교사 협력 등 8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오랜 기간 실천적 성과를 쌓아온 혁신

교육의 주요 과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교사연구자들의 논문 및 연구 결과 발표, 학교공동체를 위한 협력, 학교와 마을의 협력적 교육 활동, 다양성을 품는 다문화 시대 협력교육, 민주 시민교육 등 7개 세션이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서울혁신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학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미래를 향한 혁신교육의 비전과 교원, 학부모들의 실천 경험이 학교 혁신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경희학원, 세계평화의 날 기념 ‘PBF’ 열어

주제 ‘혼돈의 순간, 행성의식·미래정치’
오는 19일~20일 양일간 예정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은 오는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제44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Peace BAR Festival’(이하 PBF)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혼돈의 순간, 행성의식과 미래 정치(The Moment of Chaos: Planetary Consciousness and Futur

e Politics)’다. 기후 위기, 핵전쟁의 위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등 문명사적 난제와 기회가 겹쳐 있는 현재를 성찰하며,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사다. ‘행성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인류 공동의 의식에 기초한 사유 체계를 뜻한다.

경희학원은 설립자 고(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기념해 매년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의 PBF를 열고 있다.

조 박사는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유엔에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을 제안했다. IAUP는 이를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제36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했다. 이후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정했다. 세계평화의 날은 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확정됐으며, 냉전 완화와 인류 평화에 기여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반도체 분야 청년취업 기회 마련

오늘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

인천광역시와 지역 청년들에게 반도체 분야 취업 기회를 넓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12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를 열고 기업과 대학생이 직접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를 꿈꾸는 대학생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관은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반도체포럼,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맡았다.

참여 기업은 (유)스타즈칩팩코리아,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이피텍, ㈜에스에스피, 제너셀㈜, ㈜엠에스씨,

에스에스오트론㈜, ㈜이엠에스, ㈜칩스케이, ㈜미코세라믹스 등 10곳이다. 기업들은 설명회에서 회사 현황과 성장 전략을 알리고, 앞으로의 채용 계획과 필요 인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담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인사담당자와 1:1로 만나 직무별 역할과 근무 조건, 기업 문화, 복지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대학생들이 반도체 기업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얻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청년 인재와 지역 우수 기업을 연결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브랜드 론칭부터 확장·리뉴얼 까지… ‘외식 솔루션’ 속도

CJ프레시웨이

‘밥앤동’ 4년새 100호점 성공적
온리원 비즈넷→솔루션 랩 개편

삼성웰스토리

‘360솔루션’ 적용 가맹점 35% ↑
삼동소바 6개월새 매장 4.5배 ↑

CJ프레시웨이와 삼성웰스토리가 외식·급식 사업 경험을 무기로 컨설팅·솔루션 시장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브랜드 론칭부터 확장, 리뉴얼은 물론, 급식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까지 선보이며 ‘푸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부터 외식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며 ‘외식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 콘셉트 기획, 디자인, 메뉴 개발, 운영 분석 등 10여 가지 세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볶음밥·우동 전문점 ‘밥앤동’은 2022년 1호점 오픈 이후 100호점을 돌파하며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점포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 제주 지역 외식업 지원 사례를 남겼다.

올해 들어서는 기존 ‘온리원 비즈넷’을 ‘솔루션랩(SolutionLab)’으로 개편했다. 메뉴 개발, 브랜드 컨설팅 등 외식업 운영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연구·



외식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삼성웰스토리 및 KOTRA 관계자들.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기반 뉴스레터와 ‘맛있는 동행’ 프로그램 등 홍보 지원까지 아우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단체급식 사업과 식자재 고객 네트워크를 접목한 ‘타깃 플랫폼’도 새롭게 내놔다. 급식 공간을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브랜드 경험 채널로 확장한 서비스로, 고객 연령대·직군·지역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프로모션을 기획한다. 이를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신메뉴 체험,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브랜드 협업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CJ프레시웨이가 단순한 급식·식자재 유통사를 넘어 컨설팅·솔루션·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 푸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웰스토리 역시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

며 파트너사 성장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의 ‘360솔루션’을 적용한 프랜차이즈 43곳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같은 해 외식업종 평균 증가율(7.4%)의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식자재 공급액도 30% 늘었다.

‘360솔루션’은 상권 분석, 전용 상품 개발, 공간 컨설팅 등을 통합한 서비스다. 이를 도입한 외식 브랜드들은 단기간에 가맹점 수와 매출이 크게 늘며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삼동소바’는 솔루션 도입 6개월 만에 매장이 28곳에서 80곳으로 급증했고 매출도 4.5배 뛰었다.

삼성웰스토리는 공간 설계, 브랜드 마케팅을 넘어 해외 진출 지원까지 컨설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재 해외사업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해린 시장은 “2033년까지 매출의 30%를 해

외사업에서 거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 태국 CP, 일본 고쿠부 등 글로벌 유통사와 네트워크를 확보했고, 지난해 헝가리에 개설한 사업장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해외 성과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컨설팅까지 포괄하면서 중소 브랜드들의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CJ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업계 2위인 한화그룹 아워홈(18%)이 신세계푸드(7%)의 급식사업 부문을 1200억원에 인수하면서 업계 1위인 삼성웰스토리(29%)를 맹추격하게 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식품

불맛·풍미 극대화 실온 짜장소스 8종

풀무원식품은 비법 기름으로 불맛과 풍미를 극대화한 실온 짜장 소스 8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집에서든 전문점 수준의 짜장을 간편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를 위해 출시됐다.

제품은 ▲직화짜장 ▲비프유니짜장 ▲고추짜장 ▲오징어맛불짜장 ▲어니언갈릭짜장 ▲라구짜장 ▲지마장짜장 ▲우리아이 소고기짜장 8종이다.

한우, 청양고추, 대파·마늘 등의 원재료에서 직접 뽑아낸 비법 기름으로 볶아 내 깊고 진한 맛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재료 본연의 풍미가 담긴 비법 기름을 사용해 감칠맛을 끌어 올렸고, 150℃ 고온 직화솥에서 큼직하게 썬 재료를 볶아내 자연스러운 불맛과 식감을 완성했다. 양파, 양배추, 대파 등 야채는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야채를 사용해 신선함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

전지라인지에 90초만 데우면 완성되며, 실온에서 최대 9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집에서든 간편하게 전문점 수준의 짜장을 즐기실 수 있도록 ‘비법 기름’과 국내산 생야채를 활용해 맛과 신선함을 동시에 잡았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美 48개주서 소주 ‘순하리’ 마신다… 글로벌 입지 강화

롯데칠성음료, 판매채널 2.3만여곳
美 과일소주 수출액 연평균 38% ↑
교민시장 넘어 현지시장 전략 성공

롯데칠성음료가 미국 소주 시장에서 ‘순하리 처음처럼(이하 순하리)’을 필두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순하리 판매채널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2만3000여 개 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말 2700여 개 점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국 내 소주 판매 지역 또한 48개주로 2023년 말 26개주 대비 약 85% 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4년 코스트코(Costco), 타겟(Target), 크로거(Kroger), 알버슨(Albertsons) 등 미국 대형



롯데칠성음료가 미국에서 과일소주 순하리를 알리는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통채널에도 순차적으로 순하리와 새로운 입점시키며 현지 시장으로 판매채널을 넓혀 나갔다.

이에 힘입어 롯데칠성음료의 미국 내 과일소주 수출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 38%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과일소주 수출액도 전

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처음처럼, 새로 등 일반 소주의 미국 수출액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0% 이상 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순하리가 교민 시장을 넘어 현지 시장까지 확대한 성공 요인으로 미국 현지 주류 유통사 ‘E&J 갤

로’와의 협력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E&J 갤로는 전 세계 약 110개 국에 ‘칼로로시’, ‘갤로’ 등 와인을 수출하는 주류 회사로 미국 주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12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부터 갤로의 유통망을 활용해 ‘순하리’, ‘처음처럼’, ‘새로’를 현지 주류 판매점, 대형마트 체인점 등에 입점시켰다.

롯데칠성음료는 채널 다변화 이외에도 미국의 과일소주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 4월에는 미국에서 순하리 자두, 순하리 리치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SNS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제품 알리기에 나섰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마트, 퀵커머스 점포 80곳으로 확대

운영상품 수 연내 1만개 이상으로

이마트가 퀵커머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까지 운영 점포를 현재 61개에서 80여 개로 늘리고, 운영상품수 역시 현재 6000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기존 배달의민족에 이어 이달 1일 SSG닷컴 ‘바로퀵’에 입점하며 고객 접점을 늘렸다. ‘바로퀵’은 서비스 시작 후 일주일 만에 주문 건수가 두 배 이

상 늘어나는 등 초기 반응을 얻고 있다.

이마트 측에 따르면 이마트가 퀵커머스 확대에 나선 것은 2030 고학층의 높은 호응 때문이다. 지난 10개월간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량 상품, 신선식품, 밀키트 등 간편식과 저당 상품, 디저트류 등을 주로 구매했다.

한편 이마트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SSG닷컴과 배달의민족에서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연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신세계푸드, 건강빵 신제품 개발 나서

소비자 조사 ‘통곡물’ 최우선 키워드

신세계푸드가 건강빵 인기로 소비자 조사를 반영한 건강빵 신제품 개발에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8월 이마트 내 베이커리(블랑제리, E베이커리)에서 새롭게 출시한 건강빵 ‘통밀곡물쌀빵’의 누적 판매량이 출시 3주만에 1만5000개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통밀곡물쌀빵’은 곡물함유 55%로 통밀, 귀리, 대두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을 사용해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또한 가루쌀과 글루텐 분해 유산균을 넣어 남녀노소 소화에 대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으며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개당 4980원으로 마트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을 갖췄다.

신세계푸드는 영양과 성분을 갖추고 식사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건강빵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소비자 조사를 통해 마트 고객이 가장 원하는 상품으로 이번 건강빵 신상품을 개발했다.

/신원선 기자

남양유업

당 빼고 단백질 최대 ‘제로 투 맥스’ 본격화

남양유업이 건강 음료 시장에서 ‘제로 투 맥스(Zero to Max)’ 전략을 본격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출시된 ‘초코에몽 Mini 무가당’은 남양유업 가공유 제품군에서 처음으로 설탕 첨가제로 콘셉트를 적용한 제품이다. 원유 유래 당 외에는 설탕을 넣지 않아 당 함량을 5g, 칼로리를 65kcal로 낮췄으며, 120mL 미니 사이즈로 휴대성을 높였다.

커피믹스·식물성 음료·발효유에서도 ‘제로’ 제품군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로 슈가는 스테비아를 활용한 ‘프렌치카페 카페인스 스테비아’, 대체 감미료를 쓴 ‘과수원 제로슈가’, 무가당 식물성 음료 ‘아몬드데이 언스위트’, 설탕 첨가제로는 원유 유래 유당 외 설탕을 전혀 넣지 않은 발효유 ‘불가리스 설탕 무첨가 플레인’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맥스’ 전략은 영양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양유업은 한 병(350mL)에 단백질 43g을 담은 ‘데이크트 몬스터’ 시리즈(초코바나나·고소한맛)를 앞세워 초고단백 시장을 공략 중이다. 단백질 함량이 국내 시판 제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삶은 닭 가슴살 약 145g에 해당해 하루 권장량의 78%에 달한다. 발효유에서도 맥스 전략은 이어진다. ‘맛있는 드링크링 요거트’는 한 병에 생유산균 5000억 CFU를 담았다.

/신원선 기자

쿠팡, 중기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소버린AI펀드 750억 투자… ‘제2의 쿠팡’ 육성

‘AI 3대 강국’ 정책기조 동참
스타트업·성장기업 집중 투자
“‘제2의 쿠팡’으로 AI산업 기여”

쿠팡이 정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 1호 유니콘 기업으로,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맞춰 제2의 쿠팡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11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AI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의 알파코리아소버린AI펀드(스케일업 AI융합분야)에 7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사 SBVA가 운영사(GP)로 참여하는 해당 펀드에는 쿠팡이 75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이에 매칭하여 750억원을 출자한다.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AI기술기반의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쿠팡의 이번 투자 결정은 정부의 AI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원형사진)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육성정책에 협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미국 뉴욕증권(NYSE)에 상장한 경험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AI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쿠팡’을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쿠팡 관계자는 “새로운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14개사에 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 AI기술 등 보유 기술특

허만 2100개(지난해 말 누적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160개)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AI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쿠팡은 올 초 메타, 알파벳 등 글로벌 테크기업과 함께 미국 특허분석기업 ‘텍시스넥시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쿠팡은 AI기반의 물류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대규모 지역 투자를 이어 왔다.

수천만원의 상품 주문을 AI와 머신러닝 기술로 예측해 운영하며, 독자적

인 엔드투엔드(end-to-end) 배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로켓배송·당일배송 등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에는 대만 시장에 진출, 현지 로켓배송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특별기획전, 대만K-중기브랜드전, 중소기업인에 물류시스템 개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누적판매 3조원을 달성한 착한상점을 확대 개편한 ‘착한상점 2.0’을 통해 지역중소상인의 매출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은 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AI 기술기반의 물류 및 고객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임팩트 펀드 운영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아모레퍼시픽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회·환경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해 개발도상국의 사회·환경 과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8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약정을 체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향후 5년간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사회·환경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며 탄소 감축, 플라스틱 절감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역 사회 청년과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캠페인도 펼친다.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신 뷰티 지견을 나누고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투자 활동으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KGC인삼공 “홍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전 확인”

고지혈증 유발 핵심 단백질 억제
“예방·보조치료제로서 가능성 확인”

홍삼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기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인 PCSK9 발현을 억제해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춘다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홍삼이 지질 수치를 낮추고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그 분자적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KGC인삼공사 연구개발(R&D) 제품화연구소 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 저널인 사이언티

픽리포츠(ScientificReports)에 게재됐다.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C 상승,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C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한 상태를 뜻한다.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LDL-C) 증가는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PCSK9가 관여한다. PCSK9은 LDL-C를 제거하는 수용체를 분해해 혈중 LDL-C 수치를 높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지혈증의 치료제 중 일부 1차 지질 저하제는 PCSK9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으며 근육 관련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KGC인삼공사 연구팀은 프로테오믹

스(Proteomics) 분석법과 세포·동물실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홍삼이 혈중 지질 개선에 작용하는 핵심 기전을 규명했다.

홍삼 투여군과 대조군의 단백질 발현 변화를 비교한 결과, 587개 단백질의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특히 지질 대사의 핵심 표적인 PCSK9 단백질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 간세포(He pG2)에 1차 지질 저하제를 처리했을 때 PCSK9이 투여량에 비례해 증가했으나, 홍삼을 함께 투여하면 이러한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됐다.

급성 고지혈증 마우스 모델에서도 홍삼의 효능이 확인됐다. 마우스를 홍삼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홍삼 투여군에는 7일간 홍삼을 경구 투여한 후,

급성 고지혈증을 유도했다. 지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홍삼 투여군(200mg/kg)은 대조군에 비해 중성지방(TG) 57%, 총콜레스테롤 (TCHO) 30%, LDL-C가 35%로 감소한 반면, HDL-C는 16% 증가했고, 혈중 지질 개선과 함께 PCSK9 단백질 분비 역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상규 KGC인삼공사 R&D 제품화연구소장은 “홍삼의 지질개선 생리활성, 안전성, 섭취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고지혈증 예방 및 보조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홍삼 효능의 과학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제품



정관장 GLPro 혈당밸런스

정관장이 식후 간편하게 혈당과 피로 관리를 돕는 기능성 신제품 ‘GLPro 혈당밸런스(사진)’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출시된 ‘GLPro 혈당밸런스’는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 받은 독점소재인 홍삼(KGC05pg)과 필수영양성분을 활용한 혈당 조절 및 피로 케어 전문 제품으로, 과학적 복합 설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비타민B군 6종, 비타민C, 비타민D, 크롬, 아연이 포함되어 혈당·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보령, 안산캠퍼스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보령은 경기 안산에 위치한 보령 안산 캠퍼스의 ‘페니실린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한 공장 확장과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생산 시설은 연면적 기준 840평에서 1320평 수준으로 50% 이상 늘어나고 연간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된다. 또 공장 공정 자동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이뤄진다.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증설로 보령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구용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지난

2023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보령은 현재 국내 수탁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국내 최대 경구용 페니실린 제조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보령 박경숙 생산품질부문장은 “필수의약품 생산 시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안산 캠퍼스 설비 투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의약품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일동제약, 동남아시아 ‘드롭탑’ 공급 확대

〈고지혈증 치료제〉

인니 파트너사 칼베 파르마 공급계약

일동제약이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칼베 파르마에 고지혈증 치료제 ‘드롭탑’을 확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최근 칼베 파르마의 수출입 및 유통 담당 계열사인 칼베 인터내셔널과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드롭탑을 공급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드롭탑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인 로수바스타틴과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복합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일정

금액의 선급금 수취와 함께 향후 드롭탑 공급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 수령 권리도 확보하게 됐다.

일동제약은 지난 2020년 칼베 파르마와 ‘드롭탑’ 공급 관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해당 품목을 수출해 왔다. 현지 상품명은 ‘로제트’이며 발매 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25%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내 이상지질혈증분야 복합제 시장에서 드롭탑은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추가 계약을 맺은 4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드롭탑의 입지를 넓히며 회사가 보유한 다른 품목에 대한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엘지유플러스 라이프리 슬림언더웨어

엘지유플러스는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 ‘라이프리’에서 요실금용품 ‘슬림언더웨어’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엘지유플러스의 생리대 브랜드 ‘쑤피’의 기술력을 적용해 속옷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갖췄다. 기저귀 착용 면에 신축 소재를 적용해 사용자 체형에 따라 몸에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대 500ml의 넉넉한 흡수량과 통기성이 뛰어난 ‘에어커버시트’, 99% 소취 기능이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

CAMPUS LIFE

교육과 연구 혁신이 생활이 되다

지난 5년, 연구혁신 기반 시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온 우리 중앙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교육과 함께 뛰어난 연구성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선도하겠습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500명 전임교수 채용, 연구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1조 수주
- BK21 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6개, ICT 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3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첨단 인재양성 체계 확립[시학과-시대학원, 산업보안학과-보안대학원]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전자전기공학부 - 지능형 반도체대학원]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 세계 6대륙 661개 대학과 학생교류, 연구협력 협정체결

205관 첨단공학과 준공 예정
[2025년 착공]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5. 9. 9. (화) ~ 9. 12.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LG전자, 나이지리아에 태양광 활용 식수·무료세탁방 지원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진행
보어홀, 세탁·건조기 등 설치
LG TV·가전 무료 점검·수리

LG전자가 최근 나이지리아 오군 주에 위치한 아베오쿠타시에 별도의 전력 공급원 없이 태양광만으로 24시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식수시설과 이동식 무료 세탁방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물과 전기가 부족해 식수 공급과 빨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브랜드 슬로건인 '라이프스 굿'의 의미처럼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LG전자는 2019년 처음 무료 세탁방



LG전자 직원들이 최근 나이지리아 아베오쿠타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LG TV와 가전을 점검 및 수리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병원에 에어컨을 기증하는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LG전자는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지하수를 시추·여과 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보어홀(Borehole)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지역 주민에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하고, 세탁방에는 세탁·건조기와 에어컨, 빨래용품 등을 비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캠페인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LG TV와 가전을 무료로 점검 및 수리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LG전자 나이지리아법인장 지형섭 상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모두의 더 나은 삶’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충남 아산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의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



aT, 홍콩서 신선농산물 60만弗 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 홍콩 신선농산물박람회(AFL)’에 참가해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120건의 바이어와의 1:1 상담을 진행하며 포도와 키위 등 6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aT



한화이센설, '韓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한화이센설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한화이센설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업종양회 K-BIZ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황정욱 대표이사(오른쪽)가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화이센설

한국타이어, 후원 선수 CERT 챔피언 등극

‘PAST 레이싱팀’ 힐 멤버라도 선수 5라운드서 포디움 오르며 종합우승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자사가 후원하는 ‘PAST 레이싱팀’ 소속 힐 멤버라도 선수가 지난 5~6일(현지시간) 스페인 갈라시아에서 열린 스페인 그레블 랠리 챔피언십(CERT 2025) 5라운드에서 포디움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멤버라도는 한국타이어의 랠리용 타이어 다이아프로 R213을 장착하고 1라운드부터 4연승을 거뒀고, 이번 5라운드에서도 포디움에 오르며 종합 챔피언에 올랐다. 스페인 랠리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다이아프로 R



PAST 레이싱팀의 안드린 로페즈, 힐 멤버라도(오른쪽) 선수.

213은 극한의 노면 조건에서도 탁월한 접지력과 내구성을 발휘해 드라이버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토포터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산업인력公, 해외경험 청년 국내취업 지원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채용박람회’를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 운영 ▲특별 강연 ▲채용 설명회 ▲1:1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 채용관 및 정보관에서는 코웨이, 아디다스코리아 등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 총 40개사가 참여해 구직 청년들과 1:1 현장 면접 및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워킹홀리데이, 해외 인턴십 등 단기 해외 근무 경험을 가진 청년들뿐 아니라, 교환학생 등 거주 경험에 있는 청년들까지 참여했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컬리, AI 기반 식단관리 앱 ‘루션’ 선포

사용자 건강 데이터 맞춰 식단 추천
컬리 상품 구매페이지로 바로 연결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식단관리 앱 ‘루션’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에 맞춰 식단을 추천하고, 컬리의 상품 구매까지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루션은 식단 기록 기능과 맞춤형 식단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음식 사진을 찍거나 음식명을 입력하면 AI가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계산해 식단을 기록해 준다. 또한 이용자의 나이, 성별, 건강 목표 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식단을 추천한다.

앱을 통해 추천된 식단은 컬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릭요거트가 추천 식단에 포함되면, 컬리에서 판매 중인 ‘요즘 그릭요거트’ 등 특정 상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마곡 중심서 ‘테라 맥주 페스티벌’ 열린다

하이트진로, 14일까지 마곡나루서 진행

서울마곡 중심가에서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대형 맥주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하이트진로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열리는 ‘2025마곡MCT 페스티벌(Magok Culture & Tech Festival)’에 참여해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2025마곡MCT 페스티벌’ 2일차인 13일 저녁에 열린다. 서울마곡나루역 앞 7차선 도로 약 220m를 전면 통제하고 설치하는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밤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참여 가능하다. 곳곳에 마련된

맥주부스에서 시원한테라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두꺼비 포토존과 테라리얼탄산 포토존이 설치되며 웨이브레이크, 스파크레이크, 닥터게임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도 운영된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다이나믹듀오, 코요태, 뉴비트, 라포엠, 강소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열기를 더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2025마곡MCT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내내 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테라 맥주 부스와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마곡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생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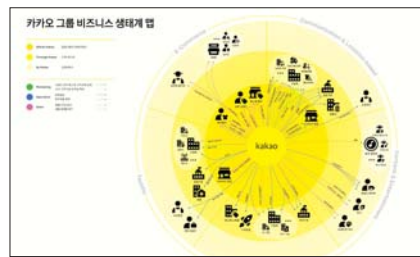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열리는 대규모 맥주 축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SG닷컴, ‘그로토’ 간편식 6종 선포

SSG닷컴이 인기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로토(Grotto)’의 간편식 6종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SSG닷컴 단독으로 멕시코 크림 파스타-리조토,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리조토, 생크림 새우 파스타-리조토 등 6종이다. 입점을 기념해 이달 17일까지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SSG닷컴



카카오, ‘비즈니스 임팩트 리포트’ 발간

카카오그룹이 구축한 서비스 생태계가 창출한 사업 효과와 파트너들의 성과 사례를 정리한 ‘비즈니스 임팩트 리포트 2025’가 발간됐다. 11일 카카오그룹에 따르면 이번 리포트에는 8개 계열사의 38개 서비스가 창출한 69가지 비즈니스 효과가 담겼다.

/카카오

오늘의 날씨

9월 12일 (금)
음력 : 7월 21일

수도권 날씨
21~2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11 | 해질 / 18:45

연천 17/28
동두천 27/27
가평 17/27
파주 18/27
서울 21/28
양평 17/27
인천 22/28
수원 21/27
용인 21/27
평택 19/28

백령도 2/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Cooperation 협동 • Collaboration 협력 • Connectedness 연결

함께 보면
함께 가면

넓게 보고
멀리 간다



소비자산업학과
김하늘



프랑스어문·문화학과 교수
Cynthia Rollin



소비자산업학과
주예슬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손민경



국어국문학과
강소원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25. 9. 8.(월) 11:00 ~ 9. 11.(목) 18:00

입학상담 | 02-920-2000

홈페이지 | ipsi.sungshin.ac.kr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새 T커머스를 기다리며



김 승 호 의
시 선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관련 TV홈쇼핑사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데이터 홈쇼핑(T커머스) 채널 신규 승인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르면 10월께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여기에 T커머스 신규 채널 승인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T커머스는 10개 채널이 있다. TV홈쇼핑을 함께 송출하고 있는 겸업 사업자가 5개, T커머스만하는 단독 사업자가 5개다.
7개 TV홈쇼핑 가운데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만 T커머스가 없다. 두 곳은 정부가 T커머스 채널을 추가로 승인해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특히 홈앤쇼핑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홈앤쇼핑의 지분 32.83%를 갖고 있는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 등 다양한 채

널을 통해 T커머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중기중앙회장을 내내째하고 있는 김기문 회장은 직전 선거에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지난 대선에서 ‘중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주요 정책과제로 각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그 사이 타이틀이 ‘중소기업 전용’에서 ‘중소상공인 특화’로 바뀌었을 뿐이다.
티메프 사태로 신뢰성 있는 유통채널이 더 필요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C커머스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선 토종 판매 채널을 다각화해야한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설득 논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도 내심 T커머스를 기다려왔다. 그동안의 행보는 홈앤쇼핑보다 덜했지만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유통혁신파트너’라는 비전에 걸맞게 이들 제품을 100% 판매하고 있어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적 성격이 강한 공영홈쇼핑의 경우 대기업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여타 T커머스 채널에 비해 차별성과 정책적 목적이 분

명해보인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동시에 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모두 대기업이다.
이재명 정부도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T커머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며 신규 승인이 못마땅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통은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지금은 홈쇼핑끼리, 또는 T커머스끼리 경쟁할 일만도 아니다. 판로를 놓고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도 안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좁디 좁은 판로를 어떻게든 더 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할 일도 바로 그것이다. 일부에선 T커머스 신규 채널 승인 과정에서 소상공인 상품 의무 편성 비율 설정 문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신설 T커머스는 적어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문턱이 전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제약·바이오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기 지 수 첵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장벽 강화, 중국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규제 수수료 인상 등이 거론된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우대 정책도 포함된다.
지난 2월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이라는 제목의 각서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자국 안보와 경제를 강조하며 특정 전략 산업에서 ‘해외 적대

국’과 관련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산업을 꼽았고 ‘중국’을 언급했다.
이른바 미국과 중국 중심의 ‘패권 전쟁’의 새 국면이다. 미국의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중국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은 43개의 혁신신약을 승인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 급증한 성과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16개의 신약을 내놓아 전년 동기 대비 21개에서 줄어든 기록을 냈다.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주목을 받는다. 올해 6월 기준 미국 제약업계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약 183억 달러에 달하는 14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방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도 변곡점을 맞고 있다. 국내외의 복합적인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K제약·바이오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핵심 성장동력은 신약 개발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생산 능력, 공급망 안정화 등에도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투자펀드에는 바이오·백신 자금도 이름을 올렸다.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각종 규제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기업에 대한 신뢰 등이 반영되는지가 향후 미래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다.

/mllee236@

김상회의四季

조조, 영웅 혹은 간웅?



기록된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의 관상 중에 삼국지의 조조는 간웅과 영웅으로 불리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쏟아진다.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위나라를 건국하고 천하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조조의 발자취는 부정할 수 없다. 큰 업적을 이룬 그의 얼굴은 목표를 향한 강한 집념과 냉정한 판단력 그리고 탁월한 지략이라는 관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정사 삼국지에서 조조는 눈빛이 예리하며 눈썹이 가늘고 길다 했다. 머리가 길고 턱이 각져서 턱선이 날카로우며 외모에서 남을 지배하는 인상으로 자주 화 난 얼굴을 하고 미소를 지을 때는 무언가 음모가 숨어 있는 느낌을 준다. 후한 말기에 인물 풍품으로 유명했던 허교는 조조의 관상을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라고 평했다.
조조의 이마는 양쪽 관골이 발달해서 전체적으로 웅장한 기세를 보여준다. 발달한 이마는 머리가 영민하며 남모르게 품은 뜻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마와 관골이 조화를 이루면 권력욕이 강하고 남의 위에 서려는 욕심이 있다. 조조가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야망을 품고 세력을 구축한 이유다. 넓은 이마에서 지략과 결단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눈은 작고 가늘고 길며 눈빛은 예리하면서 번뜩인다. 작지만 깊은 눈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예리한 눈빛은 상대를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낸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 적합한 눈빛으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능력이 있다. 위나라를 건국하기까지 그가 걸어온 행적을 보면 관상의 의미를 새삼 깨달을 수 있다. 조조의 눈매는 관상에서 가장 좋은 봉안으로 불리는데 명성을 널리 떨치는 영웅의 상을 시사한다. 코는 크고 직선적인 상으로 자신감과 정치적 권력욕이 강하다는 걸 나타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년 전통과 혁신, ‘빌까르 살몽’에 담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전통만 중시하면 자칫 고루해질 수 있고, 새로운 것만 찾다보면 본질에서 어긋나기 쉽다. 와인의 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수세대를 거쳐 유서깊은 곳이라고 해서 접해보면 명성이 전부인 곳이 있는가 하면, 떠오르는 신예라고 해서 마셔보면 개성이 테루아를 가리기 쉽상이다.

1818년에 설립됐으니 200년이 넘었는데 새롭다. 블랑 드 블랑은 좋은 교과서다 싶게 우아함과 청명함이 있고, 다른 샴페인 하우스에선 구색 맞추기인 로제가 이런 로제를 마셔본 적이 있을까 싶게 인상깊다. 무려 7세대를 거치면서도 혁명에 가까운 혁신을 거듭한 덕이다. 프랑스의 샴페인 하우스 빌까르 살몽이다.

빌까르 살몽에서 아시아 세일즈를 담당하는 티보 카솔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빌까르 살몽은 오너 패밀리와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된 테이스팅 위원회에서 양조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린다”며 “700개가 넘는 스틸 와인을 모두 시음할 정도로 위원회가 자주 모이고 의견을 취합해 양조 방향을 정하다보니 소비자 뿐만 아니라 소믈리에 등 전문가도 빌까르 살몽의 품질에 대해서는 신뢰가 깊다”고 강조했다.

빌까르 살몽의 출발점은 니콜라 프랑소아 빌까르와 엘리자베스 살몽의 러브스토리다. 니콜라는 파리에서 와인 상인이었고, 살몽 가문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다. 살몽의 동생이 와인메이커였으니 샴페인 하우스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조합이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족 소유, 가족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빌까르 살몽에서 아시아 세일즈를 담당하는 티보 카솔리가 빌까르 살몽 빈야드와 르(LE) 시리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빌까르 살몽은 약 300ha 규모의 포도밭에서 생산한 포도로 샴페인을 만든다. 이 가운데 100ha는 직접 가지고 있으며, 100ha는 장기 계약을 통해 빌까르 살몽이 직접 포도 재배를 관리한다. 나머지 100ha는 좋은 포도를 골라 사들인다.

포도밭은 상파뉴의 꼬뜨 데 블랑에서 랭스까지 다양한 위치에 있지만 거리로 따지면 와이너리로부터 30km를 넘지 않는다. 수확철에 보통 많이 덥다보니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산도나 신선도에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티보는 “살몽은 아로마와 신선함, 숙성 잠재력의 바탕이 되는 좋은 산도를 얻기 위해 샴페인 하우스 가운데 가장 먼저 수확을 하는 곳”이라며 “40곳이 넘는 크뤼에서 재배된 포도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균형점을 찾지만 아무리 좋은 포도밭이라고 해도 멀리 떨어진 곳은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빌까르 살몽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시작은 ‘샴페인 빌까르 살몽 르 블랑 드 블랑’이다. 그랑 크뤼 밭에서 재배된 최상급의 샤도네이로



빌까르 살몽의 오너 패밀리 5세대부터 7세대가 함께 모였다. 왼쪽부터 6세대인 앙투안과 프랑수아, 5세대인 장, 7세대인 매튜. /나라셀라

만 만들었다.

저온 안정화로 과실 아로마와 미네랄은 잘 표현됐고, 좋은 산도가 그대로 살아있다. 저온 안정화는 5세대인 장이 고안한 방식으로 13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토록 한다. 보통 이 온도에서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지만 가능한 효모를 찾아내 적용했다.

여기에 긴 숙성기간이 더해졌다. 상파뉴 관련 규정상 논 빈티지는 15개월 이상만 숙성하면 되지만 르 블랑 드 블랑은 무려 5년을 묵혔다. 다른 샴페인 하우스로 치면 빈티지 샴페인급이다.

‘샴페인 빌까르 살몽 르 리저브’는 빌까르 살몽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플래그십 와인이다. 논 빈티지 샴페인을 ‘르’ 시리즈로 재탄생시키면서 숙성 기간과 리저브 와인 비중을 확 늘렸다. 2006년 이후 15개 빈티지의 리저브 와인의 비중이 70%를 웃돌며, 숙성 기간은 50개월에 달한다. 풍미가 있다보니 식전은 물론 다양한 음식과 같이 마시기 좋다.

티보는 “원래 논 빈티지에는 브뤼 등을 표

시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대부분의 와인이 엑스트라 브뤼의 당도라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새로운 품질과 혁신을 적용해 ‘르’ 시리즈로 리브랜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샴페인 빌까르 살몽 르 수부아’의 특징은 체리우드 레이블에 힌트가 있다. 배럴 양조다. 오크 숙성으로 산화 풍미를 끌어내지만 다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균 15년된 배럴을 사용한다.

르 수부아는 좋은 산도로 집중력이 있으면서 배럴 양조로 질감이 풍부하다. 과실미와 아로마도 충분히 느껴진다. 산화 풍미로 소스 요리나 붉은 육류와도 잘 어울릴 샴페인이다.

‘샴페인 빌까르 살몽 르 로제’는 빌까르 살몽을 대표하는 와인 중 하나다. 로제 와인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인 로제 와인 같지 않게 만들라는 특명에서 탄생했다. 레드 와인을 섞는 블랜딩 방식으로 만들어 마시면 깔끔하고 우아한 샴페인으로 들어와서 레드 와인의 여운을 남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오페라 ‘나비부인·카르멘’ 관객과의 대화

롯데시네마가 ‘파리 오페라&발레’ 시리즈 중 오페라 타이틀 ‘나비부인’과 ‘카르멘’ 개봉을 기념하여 GV(관객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9월 16일 오페라 ‘나비부인’을 상영한다. 절제된 연기와 미니멀한 무대, 음악의 순수함이 더욱 돋보이는 푸치니의 오페라로, 지난 3월의 공연 실황을 극장 스크린에 담아낸 작품이다. 9월 23일 개봉하는 오페라 ‘카르멘’은 삶에 대한 갈망과 파괴적인 열정을 스크린에 숨가쁘게 펼쳐낼 예정이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시리즈 배급사 위즈온센과 함께 ‘파리 오페라&발레’ 시리즈 단독 상영을 기념하여 GV를 개최한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9월 17일 진행되는 ‘나비부인’ GV와 9월 28일 개최되는 ‘카르멘’ GV에는 세계적인 팜페라테니 임형주가 참석한다.



롯데시네마가 오페라 ‘나비부인’, ‘카르멘’의 개봉을 기념해 팜페라테니 임형주와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롯데시네마

아시아 팜페라계의 선구자이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젊은 거장 임형주는 음악 영화 GV의 흥행 보증수표로서 관객들과 함께 오페라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나눌 예정이다. 환상적인 오페라 사운드 감상에 임형주의 작품 이야기까지 더해져 영화에 대한 만족감을 더욱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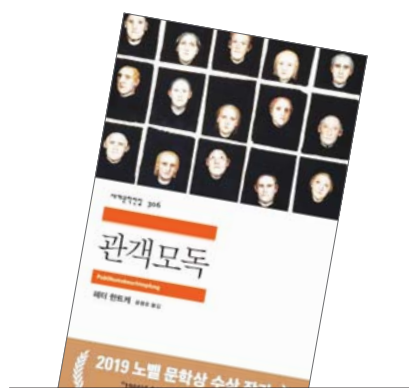
주말은 책과 함께

언어 유희로 풍자한 관객과 현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페터 한트케의 대표 희곡 ‘관객모독’은 연극사에서 ‘실험극’ 혹은 ‘반(反)연극’의 전형으로 불리는 작품이다. 제목 그대로 “관객을 모독한다”는 도발적 선언을 담은 책이다.

한트케는 연극이 가진 허구적 무대와 몰입 구조를 해체하고, 관객과 배우의 관계를 정면으로 전복시킨다. 통상적인 연극의 서사와 인물, 사건 전개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이름조차 없는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배우들’로만 존재한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극을 ‘연기’하지 않고, 연극의 본질과 관습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어댄다.

마지막에 이르면 배우들은 관객을 향해 노골적인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다. 이 대담한 시도는 연극을 ‘이야기 감상’이 아닌 ‘극장 체험’ 자체로 돌려놓으려는 급진적 선언



관객모독

페터 한트케 지음/윤용호 옮김/민음사

이다.

한트케는 작품을 통해 “연극은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 있는 언어의 실험”이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91쪽, 1만원.

/김현정 기자 hjk1@



▲日 최대 전력사, 美 알래스카 LNG 조달 검토의 향서 서명

▲트럼프, 엠스타인 메모 논란에 NYT 상대 소송 위협

/사전 뉴스

▲中부총리, 신임 英통상장관 만나 “경제 협력 심화”

▲“푸틴, 나토 방공망 테스트 만족했을 것… 우크라이나 드론 배워야”

▲“대법원원 트럼프 관세, 무역 분쟁 넘어 ‘대통령 재정 권한’ 시험대

▲EU, 트럼프 ‘중국·인도에 100% 관세부과’ 요구 거부할듯“



브랜드 론칭부터
확장·리뉴얼까지
외식솔루션 속도
L1

metro®

Life

쿠팡
소버린시펀드
750억 투자
L2



철길 옆, 자작나무 숲 거닐며... 계절의 흐름 느껴볼까

아파트의 미학(美學)

휘경자이 디센시아

석재 마감재와 어우러진 세련된 조경
따뜻한 색감 더해 격조 높은 공간으로
계절별로 다른 매력 지닌 '자작나무 숲'
철길 컨셉 안개분수 조성 '버치 힐 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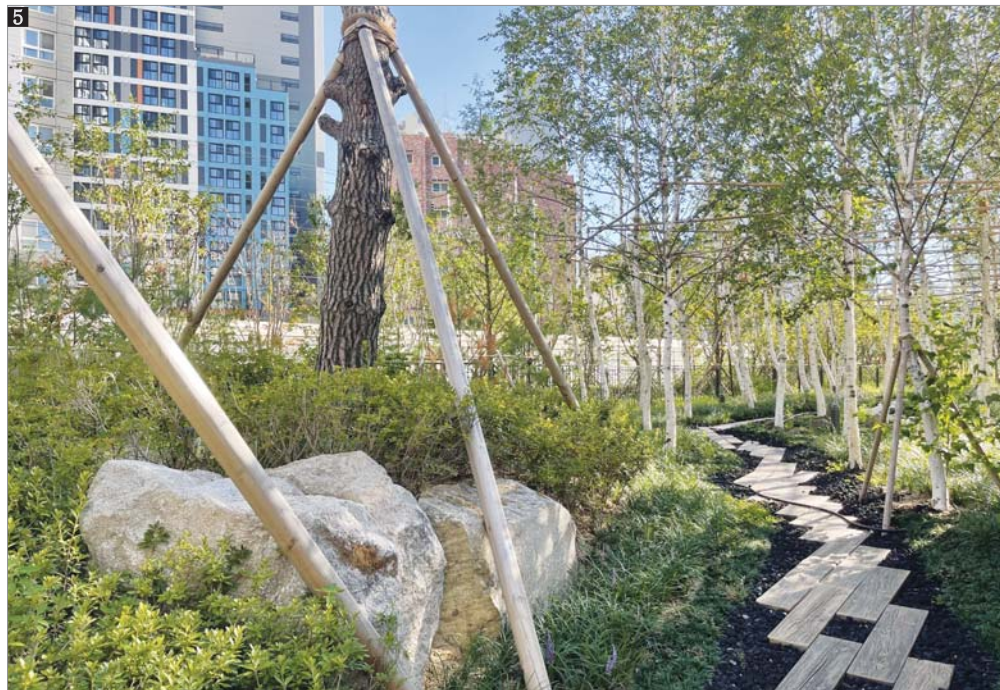
최근 찾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지난 6월 30일 입주를 시작했다. 1호선 외대앞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가량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연회색 톤의 두툽한 석재로 마감된 게이트는 차갑지만 견고한 기운을 풍기며 도시 한복판에서 단지를 지키는 성벽처럼 위용을 드러낸다. 위로 곧게 솟은 고층 동들과 맞닿아 웅장함이 배가되며 입주민을 맞이하는 문턱이 자 도시의 관문 같은 인상을 남긴다.

석재 기둥 사이로 단정하게 자리한 '자이(Xi)' 로고는 절제된 배경 속에서 더욱 선명히 빛난다. 회색 석재와 어우러진 검은색 로고는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미감을 강조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단지의 품격을 동시에 각인시킨다.

단지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3개 노선이 정차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까지 도보로 닿을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근처 청량리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봉역 인근에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근 거리에 있고 중랑천이 인접해 운동과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갖췄다.

GS건설이 시공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 동, 총 1806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39~84㎡ 중소형 타입으로 이뤄져 있다.



V자형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고 전용면적 59㎡ 타입 일부 세대에는 4베이 관상형 구조에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출입구 상단을 가로지르는 주황빛 조명은 묵직한 석재 마감에 따뜻한 기운을 더하며 고급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한다. 짙은 먹빛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빛줄기는 단순한 통로를 격조 높은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자작나무원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버치 힐 가든'에서는 이어진 철길을 따라 걸으며 안개분수의 청량함을 느낄 수 있다. 철길 컨셉을 반영해 조성한 공간으로 판석 사이 철재구조물에 자연스러운 녹이 숨어 있다.

'에코블루 엘리시안 가든'에는 커다란 팽나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숲이 피었다. 청량한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함께 조성된 '수생비오톱'은 깨끗한 물에서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곤충과 나비,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여러 식물을 심었다.

대왕 참나무와 휴게데크가 맞이하는 나무의 품 속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오크가든', 나무와 물소리가 배경

오크가든, 리빙가든 등 휴식공간 풍부
테라스 아래 경치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단지 내 랜드마크 '디퓨전 스마일' 등
조각작품 배치, 공간에 예술 감성 더해

이 되는 자연의 거실에 앉아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리빙 가든', 테라스 아래 넓은 전경을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가든',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와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보더 가든'에서는 조용한 물소리와 함께 계절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 정글을 여행하는 탐험가가 되어 정글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정글 테마 놀이터 '용감한 탐험가의 정글 여행'.

빙하가 둘러싸인 남극에서 이리저리 뛰어 놀며 아이들의 호기심에 자극을 주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빙하 테마 놀이터 '행권과 떠나는 빙하 월드파크', 꼬마 캠퍼가 캠핑장을 뛰어다니며 모험심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캠핑 테마 놀이터 '꼬마 캠퍼 달빛 캠핑장'.

아이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는 캠핑카 테마 놀이터 '낭만 캠핑장을 운영하는 캠핑 기지', 아이들이 항구마을을 탐험하며 신체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해양 테마 놀이터 '항구마을 항해사'.

두 개의 조각상은 단지를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준다. 김동규, 김성조 작가의 '디퓨전 스마일'은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도장으로 만든 작품이다.

모든 대상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구조의 최소단위 즉, 유닛의 구조와 형태를 모듈로 재해석하고 시각화했다. 시각화된 모듈



은 또 다른 모듈과 결합해 미소를 띄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한다.

김경아 작가의 '웨이브-밀키웨이'는 스테인리스스틸, 우레탄 도장, LED 조명으로 이뤄진 작품이다. 낮에는 물과 바람 그리고 하늘의 움직임이 되고 밤에는 은하수가 된다. 라인의 흐름을 우아하게 덧입혀 예술적 감성을 더한 문화의 공간을 선사한다.

단지 내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입욕시설을 갖춘 사우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다. 주민운동시설에서는 스트레칭,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한 기구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3in1 시스템의 야외운동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차분한 초록색으로 꾸며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기에 편안한 호흡으로 기초체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1 수경공간 '에코블루 엘리시안 가든' 2 김동규·김성조 작가의 '디퓨전 스마일' 3 김경아 작가의 '웨이브-밀키웨이' 4 다양한 나무가 식재된 '리빙가든' 5 자작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버치 힐 가든' /전지원 기자